韓國心理學會誌 : 産業 및 組織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995. Vol. 8, No. 1, 103-139

한국인의 경제 가치관에 관한 연구 : 조선 중·후기 소설을 중심으로*

성 영 신 · 김 철 민 · 고 동 우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전통적 경제 가치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선 중·후기 소설인 '흥부전', '허생전', '양반전' 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물질의 요소가 개입되어 있는 신념들을 경제 가치관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물질 가치관과 인간 관계 속의 물질 가치관을 기본적인 분석의 틀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물질 가치관의 내용은 i) 물질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신념들 ii) 빈부에 대한 신념들 iii) 돈의 심리적 의미이며, 인간 관계 속의 물질 가치관의 내용은 i) 개인과 물질 ii) 가족과 물질 iii) 사회적 관계와 물질이다. 분석 결과 도출한 물질 가치관의 주요 내용은 분수(分守)의 이중적 적용기준, 빈부의 운명론, 신분과 부의 밀접한 관련성, 황금 만능주의 신념 등이었으며, 또 인간 관계 속의 물질 가치관의 주요 내용으로는 마음의 안정(특히 修養)과 물질의 연관성, 가족을 위한 물질 추구 신념, 물질 추구에 있어서 사회적 정(情)과 의(義)의 중요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종교적 신념이나 행동에서는 기복신앙의 측면이 두드러짐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인의 경제행동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며, 차후의 가치관 연구와 마케팅 전략 개발에 있어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인간은 생산과 소비 행동을 반복하며 살아간다. 생산자이며 소비자로서 한 인간의 행동을 잘 이해하고 설명하려면, 그 개인 행동의 이면에 있는 가치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한 개인의 가치관은 그가 속한 사회의 가치관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한 사회의 가치관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과 삶을 규정하고 (Benedict, 1946), 그 사회 문화의 핵심을 이루기 때문이다(Rokeach, 1979). 개인으로서 인간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의 가치관을 수용하고 내재화하여 그에 맞게 행동하며 살아간다. 개인의 가치관은 그 개인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고 바람직하게 여기는 신념들(beliefs) 중 핵심적인 것들로서 개인 행동의 지침이 된다. 따라서 개인의 행동, 특히 개인의 경제행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경제행동과 관련된 핵심적인 신념들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통적인 신념들은 그 사회만의 고유한 역사의 산물이며, 문화적 배경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의 경제행동의 이면에 있는 핵심적인 신념들을 파악하려면 한국이라는 사회문화권에서 독특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것들을 조망해 보아야 한다.

조선조 오백년 동안 강력한 유교적 지배질서 속에 놓여있던 한국은 자생적 상업 중심의 경제 논리와 개화기 개신교 선교사 중심의 서구 자본주의 논리를 混融하기도 전에 일본의 군국주의에 강점당하게 되었다(강만길, 1980;이강수, 1986). 일제 식민통치로 인해 한국사회에 산업자본주의 의식의 발판이 마

*. 본 연구는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94단기연구과제」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본 논문을 심사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련된 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김경동, 1992), 한국의 일반대중에게 서구 자본주의 체제와 전면적인 접촉을 가능하게한 것은 8.15광복에서 6.25전란 사이였다(이강수, 1986). 8.15광복에서 전란에 이르는 동안 본격적으로 유입한 서구의 사상은 한국 사회에 전통적 가치체계의 혼란을 가져왔다. 전쟁으로 인한 생활기반의 상실은 필연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투쟁 상황을 마련하였고, 생존의 욕구 조차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유입하는 서구사상에 대한 내용적 성찰의 여지는 없었다. 생리적 결핍을 벗어나려는 욕구가 강했기에 과거의 윤리나 도덕, 체면에 따져 볼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산업 자본주의의 생산원리가 편승하여 6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화는 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도의 경제 성장은 한국 사회성원 개개인에게 부의 축적을 가져 왔고, 생산의 시대에서 소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단순히 잘 살아보자는 인간의 기본 욕구 충족의 시기를 벗어나 왜,무엇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가, 어떻게 소비해야 하는 가에 대해 진지하게 반추해야 할 시기가 된 것이다. 물론 60년대-70년대에 이미 일부 계층에서는 기본적 욕구충족 차원의 물질추구에 대해 회의를 드러내고 있었다(김경동, 1992). 하지만 물질적 풍요를 바탕으로 하여 일반대중이 경제적 측면에서 가치관의 갈등을 표출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일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를 흔히 가치관의 혼란기 또는 서구 자본주의 가치관과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의 혼재의 시기라 부르는 듯하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라는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독특하게 유지되고 있는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한국인의 가치관을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인의 가치관은 과거의 그것에 이미 서구의 사상이 유입하여 문화 전파(diffusion) 또는 문화 접변(acculturation) 과정을 통한 질적 변화 내지 양상의 변화를 거듭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인의 가치관, 특히 경제행동의 이면에 있는 가치관을 규명하려면, 기초작업으로서 서구 자본주의 체제 유입 이전의 것-傳統的 價値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의 사회 과학자들은 한국의 전통적 의식구조, 가치관, 사회적 성격을 연구함에 있어 유교의 영향을 공통 분모로 내세우고 있다(윤태림, 1977;차재호, 1984;정신문화연구원, 1984, 1988). 물론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관은 역사적으로 볼때 巫敎의 논리로 부터 출발하여 道敎, 佛敎의 논리를 거쳐 儒敎 특히 性理學의 논리로 이어졌기 때문에 유교만이 전통을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윤사순, 1984), 조선조 수백년 동안 유교가 중심적 적용문화(지배규범)의 위치를 점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통적 가치관에서 유교의 비중은 심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관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교의 논리에 내포된 물질에 대한 신념들이나 경제행동의 목적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유교의 경전들에 나타난 물질에 대한 가치관 연구들(윤태림, 1977;조긍호, 1990,1991;성영신,김철민,서정희,박종구,박은아, 1993)만으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을 충분하게 규명했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유교의 주장이나 가르침이 과거 한국인에게 지배논리로 작용한 것은 틀림없지만, 이러한 유교의 논리가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일반대중의 삶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관을 전체적으로 조명해보기 위해서는 과거 한국의 서민들의 삶을 반영한 문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목적

생산자이자 소비자(prosumer)로서 인간은 물질추구, 획득, 소비, 교환, 선물하기, 분배 등과 같은 수

많은 일상적 경제 행동을 반복하며 살아간다. 인간의 이러한 경제행동의 대부분은 물질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 인간은 의식적이든 아니든 경제행동의 대상인 물질 자체에 대한 신념(시각)이나 관점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즉 한 개인의 여러 경제행동의 이면에는 그 경제 행동의 대상인 물질에 대한 신념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개인의 물질 자체에 대한 신념들을 파악한다면 그의 여러 경제행동들을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경제행동에는 물질 자체에 대한 신념들뿐아니라 그 행동의 목적이나 의도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물질을 통하여 자신의 특정한 목적이나 욕구를 달성하려 한다. 이러한 인간의 행동 목적이나 욕구가 개인의 경제행동에 방향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경제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가 지닌 물질 자체에 대한 신념들을 규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경제행동의 의도나 목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경제행동의 이면에 있는 물질 자체에 대한 신념들과 그 경제행동을 방향짓는 목적에 대한 신념들이 통합된 형태의 신념들을 '경제 가치관'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그런데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개인의 경제 가치관을 규명한다는 것은 그 개인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바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즉 그 개인이 속한 사회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에서 유지되고 있는 경제 가치관을 조망해보아야 하는 것이다. 서구의 문화인류학자들의 연구(Csikszentmihalyi와 Rochberg-Halton, 1981)나 마케팅 학자들의 연구(Wallendorf와 Arnould, 1988; Dawson와 Bamossy, 1990; Ger와 Belk, 1990)를 살펴보면, 인간이 물질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신념들은 문화권이나 나라에 따라 다름을 시사하고 있다. 이들은 인간이 물질에 대해 집착하거나 심리적 에너지를 투여하는 것을 물질주의(materialism)라 규정하고 물질주의에 대한 비교문화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물질주의는 문화보편적으로 존재하지만 인간이 물질에 대해 부여하는 意味나 重要性의 程度는 문화권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인간의 물질에 대한 집착이나 물질적 욕구(物慾)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존재할 것이지만 물질에 대한 집착의 정도나 이유는 문화에 따라 다르다. 특히 개인주의적 문화틀을 배경으로한 서구 사회와 집단주의의 문화배경을 갖고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각 성원들이 물질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다를 수 있다(정양은, 1976;최상진, 1990;최상진.최수향, 1990).

따라서 현재 한국인의 경제 가치관을 바로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의 전통적 경제 가치관, 특히 바로 앞선 시대(조선조)의 그것부터 살펴보아야 하리라 본다. 물론 조선조의 경제사나 상인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연구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가치관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드물다. 성영신 등(1993)은 유교의 대표적 경전인 論語와 孟子에 나타난 물질 가치관과 소비행동 규범을 분석하여 한국의 전통적인 경제 가치관을 규명하려 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만으로 한국의 전통적 경제 가치관이 포괄적으로 규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지적듯이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의 측면에서 유교의 비중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지배층의 논리인 유교가 과거 서민들의 일상적 삶에 그대로 스며들었을 것이라고 추론하기에는 오류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즉 이천여년 전 중국의 시대 상황을 반영한 孔孟의 가르침이 과거 한국의 사회 현실적 배경속에서 지배층의 논리를 거쳐 일반대중에게 그대로 파급하였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데는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론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 한국의 서민들의 삶이 직접 반영된 문헌을 통해 그들의 일상적 경제행동의 이면에 있는 가치관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한국인의 일상적인 경제행동의 이면에 있는 가치관을 파악하고자 할 때 고려

해야 할 점은 경제행동의 매개물인 물질과 행동의 주체인 개인과의 관계만을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행동을 하고 또 그 경제행동은 인간 관계망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인의 인간 관계망은 개인과 사회로 구분되는 서구의 개인주의 틀과 달리 개인, 가족, 사회로 구분되거나 내집단, 외집단으로 구분되기도 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집단주의 틀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한국인이 공유하고 있었던 추상적인 수준에서 물질 자체에 대한 신념들뿐 아니라, 그것들과 인간관계-자기 자신, 가족, 유의미한 타인, 대인 관계-속에서의 좀 더 구체적인 물질에 대한 신념들이 결합한 신념들의 집합-경제가치관-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한국인의 경제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조선 중.후기 서민들의 삶이 반영된 문헌들에 나타난 경제 가치관을 규명하려 한다. 이렇게 조선조 문헌에 나타난 경제 가치관을 분석하여 현재 한국인의 가치관에 대한 조사자료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지난시대에서 현재로 이어져온 경제 가치관을 심층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아니라 현재 한국인의 여러 경제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준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대상문헌

과거 조상들이 지녔던 가치관 가운데 현재 후손에게 많은 영향을 남기는 것은 일부 전문적인 사상가나 학자들이 주장했던 이론뿐아니라 각계각층의 삶 특히 서민들의 일상생활속에서 나타나는 행동과 사유의 경향으로서의 가치관이다. 문제는 과거 서민들의 일상생활속에서 형성된 가치관을 어떻게 밝힐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과거 서민들의 생활 속에 형성되었던 가치관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직접적 기록이 없다면 간접적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조 소설을 간접적 자료로 선정하였다. 소설은 그 배경을 이루는 시대의 생활양상과 그 시대 사람들의 가치관을 비교적 알기 쉽게 반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조선조의 소설은 당시 뿐아니라 현재에 이르기까지 널리 애독되어 저자와 독자간에 주고 받은 바 컸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간접적 자료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소설의 범위는 조선조 전체가 아닌 조선조 중.후기 소설에 한정하였다. 왜냐하면 조선 중기 이후부터 화폐 사용이 일반화되기 시작하고 상업이 번창할 뿐아니라 계층이동도 비교적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더우기 이때부터 구전되어온 판소리가 기록되고 언문.국한문 소설이 광범위하게 일반대중에 전파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조 중기 이후로 각계각층의 일반대중에게 많이 읽혀져 왔으며, 당시 서민들의 경제행동 묘사가 풍부한 소설 가운데서 전문가의 조언[1]을 토대로 하여 가족관계와 재물의 갈등에 관한 「興夫傳」, 사회계층과 물질의 관계에 대한 「兩班傳」, 유학자의 상업경제활동을 다룬 「許生傳」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중 「흥부전」은 그 전승과정에 있어서 오랜 세월을 통하여 手寫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여러가지 異本들이 있었으므로, 흥부전 연구자들이 일반적인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京板本에 속하는 孫洛範 校註本을 선택하였다. 조선조 후기 실학자인 박지원의 소설 양반전과 허생전은 그의 「燕巖集」의 放璃閣外傳과 玉匣夜話편에 실린 원본을 주 대상으로 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주해서를 참조하였다.

분석 준거

1)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김흥규 교수에게 자문을 구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선정한 각 소설작품속에 나타난 경제행동이나 직접적인 가치언어의 사용빈도를 계산하는 방법보다는 주로 문맥을 중심으로 하여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 이유는 조선조의 소설이 당시의 어떤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있는 그대로의 기록이기보다는 해석을 요하는 자료이기 때문이었다. 의미분석을 위하여 먼저 각 소설들을 정독하고, 각 소설에 나타난 경제행동들 즉 물질의 추구, 획득, 소비, 교환, 분배 등의 행동들과 이러한 행동의 목적이나 배경 묘사를 1차적으로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한 구, 문장, 단락들을 분석하여 각 경제행동에 나타난 물질 자체에 대한 신념들, 경제행동의 주체인 개인이 물질을 매개로 하여 인간관계 속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 즉 자신에 대한 신념들, 가족과 타인에 대한 신념들, 대인관계에 대한 신념들을 모두 추출하였다. 물론 경제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난 신념이 아닌 소설의 저자나 주인공의 직접적인 신념 형태의 묘사들에 대해서는 바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추출한 신념들은 현실의 일상적 삶의 논리를 반영하고 있는 '현실적 신념들'과 당위적.관념적인 삶의 논리를 표현하고 있는 '이상적 신념들'로 대별할 수 있었다.

차후의 논의에서는 각 소설에 나타난 경제행동의 이면에 있는 물질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에 해당하는 신념들의 묶음은 '물질 가치관'으로, 경제행동의 목적상태에 해당하는 자신, 가족, 타인, 대인관계에 대한 신념들의 묶음은 '인간관계 가치관'으로 명명하고 서술할 것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바는 인간관계 가치관 그 자체는 아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개인은 자신의 물질에 대한 신념만을 가지고 경제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은 물질을 매개로 하여 어떤 목적-인간관계 가치관-을 달성하려고 경제행동을 한다. 따라서 개인의 경제행동을 규정하는 경제 가치관의 분석에서는 물질 가치관뿐 아니라 인간관계속에서 표출되고 변화된 물질 가치관, 즉 인간관계 가치관과 물질 가치관이 어떻게 통합되어 있는 가를 살펴볼 것이다(그림 1). 그리하여 본론의 제 1절 물질 가치관에서는 물질과 마음의 관계, 빈부관, 빈부와 귀천 관계, 돈의 심리적 의미를 다루고, 제 2절 인간 관계속에서의 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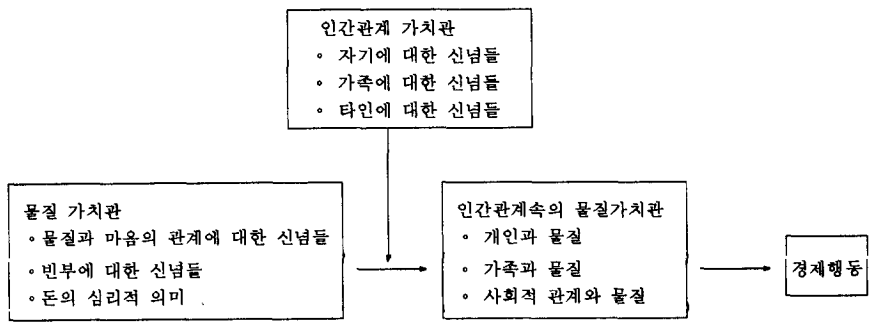


그림 1. 신념, 가치관, 행동의 관계

가치관에서는 개인과 물질, 가족과 물질, 사회적 관계와 물질을 다룰 것이다.

경제 가치관

본 절에서는 경제 가치관을 두 차원으로 나누어서 서술하고자 한다. 1 절에서는 경제 행동의 주체인 인간이 일반적으로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관한 신념들의 집합으로서 '물질 가치관'을 다루고, 2 절에서는 자신을 포함한 인간 관계 상황이 개입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인간 관계 속에서의 물질 가치관'을 다룰 것이다.

1. 물질 가치관

물질 가치관은 재물이나 돈 등의 물질과 관련하여 상황에 구애받음이 없이 내면화된 신념들의 집합이다. 여기에는 연구 문헌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직접 표현된 것들이거나, 직접적으로 묘사되지는 않았지만 전후 맥락으로부터 추론되는 물질관련 신념의 내용들이 포함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추출한 신념들의 주제에 내포된 추상성의 수준에 따라서 서술할 것이다.

(1) 물질과 마음

① 물질과 마음의 안정

'마음의 안정'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행복','편안함','즐거움' 등을 의미한다. 물질의 유무와 마음의 안정 사이의 관계는 '마음의 안정'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이상적인 경우의 마음의 안정을 고려해 보자.

"내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백만 냥을 버리고 십만 냥을 취하겠소? 내 이제부터는 그대의 덕을 보고 살 것이니, 그대는 수시로 나를 돌보아주오. 식구를 계산해서 양식을 보내고 몸을 재어서 무명을 준다면 한평생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오. 무슨 까닭으로 재물을 가지고 나를 고단하게 만든단 말이오."

위의 인용문은 부자 변씨가 허생에게서 받았던 돈을 돌려주기 위해 허생을 찾아갔던 대목이다. 여기서 재물에 대한 허생의 생각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재물이 오히려 자신을 고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구절이 그것이다. 재물이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단하게 만드는 것이다. 허생과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은 물질을 얻는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인격 완성에 이르는 데 있어서 물질의 많음은 오히려 마음의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

위의 예에서 허생은 보통 사람이라기보다 오히려 전형적인 군자의 모습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물질과 마음의 안정 관계에 대한 일반 서민의 신념과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보통사람의 생각을 묘사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허생전에서 허생이 이상적인 인간의 전형이라면 변씨는 보통의 인물로 대비된다.

허생은 실로 오랜만에 변씨를 찾아갔다.
"그대는 나를 기억하겠소?"
변씨는 놀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대는 얼굴빛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군. 만금을 몽땅 털린 모양이구려."
허생은 웃으며 말했다.
"재물로 인해서 얼굴이 좋아지는 것은 그대들에게나 있는 일이오. 만금이 어찌 도를 살찌게 한단 말이오."

위의 인용문은 허생이 변씨에게서 빌렸던 돈을 갚기 위해, 변씨를 찾아간 대목이다. 여기서 변씨는 허생의 얼굴 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것을 '만금을 모두 털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

허생은 "그대들(보통사람들)에게 있어서, 재물은 얼굴을 좋아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마음의 안정이 표출된 상태가 안색이라고 본다면, 마음의 안정은 재물에 의해 유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흥부전」의 전반적인 내용에서 놀부와 그 처가 재물을 탐하는 여러 대목 역시 이러한 기본적인 신념을 여실히 보여준다. 가령 놀부의 박이 열렸을 시기에 놀부의 대사를 보자.

> -- 놀부가 매우 기뻐하며 제 계집과 의논하는 말이 "흥부 놈은 박 네 통을 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으나. 우리는 박 십여 통이 저렇듯 열렸으니 ---- 박을 다 타 놓으면 천하에 유수한 장자 되어 의돈이를 겉채에 들이고, 석숭이를 붙잡아다 부릴 것이니, 만승천자가 부러워할까?"

위에서 놀부는 박에서 나올 재물이 가져올 여러 가지 결과들에 대해 강한 소망적 사고를 하고 있다. 놀부에게 재물은 지상 최고의 가치이며, 인생 행복의 최고 수단인 셈이다. 놀부에게 있어서 물질은 곧 행복에 이르는 왕도이며, 물질이 곧 행복인 것이다.「허생전」의 '변씨'나 「흥부전」의 '놀부'를 이상적인 인간형이라기보다 보통인간형이라고 가정할 때, 물질의 유무가 마음의 안정을 좌우한다는 생각은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신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실적인 신념은 재물의 유무와 마음의 안정을 정적인 관계로 본 것이다.

그렇다면 물질과 마음의 안정 사이의 이상적인 신념과 현실적인 신념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은 특히 도덕과 현실의 괴리가 큰 경우에 더욱 문제가 된다. 예컨대 재물은 언제나 마음의 안정을 해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아마도 재물이 마음의 안정을 해친다는 생각은 재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의 기준을 넘어선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다.

> 이로부터 변씨는 허생의 쌀 되주가 바닥 나는 것을 계산하고 옷장 속을 헤아리고 때를 맞추어 손수 날라다 주었다. 그러면 허생도 흔연히 반가워하였지만 혹시 분수에 넘치면 곧 좋아하지 않았다.
> "어째서 내게 재앙을 물려주려 한단 말인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허생은 재물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그것을 재앙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인용문에서 보는 것처럼 재물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분수(分守)'를 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물론 여기서 분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분수에 넘치지 않는 재물이란 기본적인 수준의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재물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마음의 안정을 위해선 최소 수준을 넘어선 정도의 재물은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분수 넘는 물질이 마음의 안정을 해친다"는 신념을 유추할 수 있다.

결국, 물질과 마음의 안정의 관계에 대해 현실적인 정(正)적 신념과 이상적인 부(負)적 신념이 각각 존재한다. 문제는 이 둘 간의 부조화를 어떻게 통합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한 가지 방법은 해석의 폭이 큰 개념인 분수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며, 또 다른 방법은 마음의 안정과 재물의 유무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신념을 형성하는 것이다. 가령, "만금이도를 살찌게 할 수 없다"는 표현 속에는 재물이 마음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신념뿐 아니라 재물과 마음의 안정은 독립적이라는 신념도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② 물질 소유욕에 관한 신념

인간에게 있어서 물질 추구욕(물욕)은 본능적인 것일 수 있다. 따라서 물욕이라는 본능의 표현(즉, 행동)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신념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인간의 물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물욕과 생리적 욕구의 관계에 대해 살펴 보자.

" -- 슬근슬근 톡 타 놓으니 순금궤 하나 금거북 자물쇠를 채웠으되 〈흥부가 열어보라〉하였으므로, 흥부는 온근히 좋아라 하고 끌어앉아 열고 보니, 황금·백금·오금·십상·좋은 천은이며, 밀화·호박·산호·금패·진주·주사·사향·용뇌향·수은이 가득 찼기에 쏟아 놓으면 여전히 가득 가득 차고, 쏟고 나서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니, 흥부내외가 좋아하고 밥먹을 사이 없이 밤낮 엿새를 부리나케 쏟고 보니 어언 간에 큰 장자가 되었구나!"

위의 인용문은 흥부내외가 박을 타는 광경을 묘사한 것이다. 위에서 흥부 내외는 박에서 나오는 많은 재물이 너무 반갑고 좋아서 밥먹을 사이도 없고 잠을 잘 여유도 없다. 시간의 압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니지만, 수면욕과 식욕보다 재물이 더 큰 유인가를 보이는 것이다. 재물이 너무 좋아서 먹고 자는 일까지 초월할 수도 있는 것이다. 위의 인용구절에 다소 과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물욕이 생리적 욕구를 초월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움으로써 물욕이 보편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물욕은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의 본능적 경향성으로 고려된다. 그러면 그런 욕구는 어떤 형태의 모습인가? 무작정 쌓아 놓는 종류의 무조건적인 추구욕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아마도 흥부전의 다음 구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놈아 들어 보아라. 쌀이 많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섬을 헐며, 벼가 많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노적 헐며, 돈이 많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궤 돈 헐며, 가루되나 주자 한들 너 주자고 큰 독에 가득한 것을 떠내며, 의복 가지나 주자 한들 너 주자고 행랑것들 벗기며, 찬 밥술이나 주자 한들 너 주자고 마루 아래 청삽사리 굶기며, 지게미나 주자 한들 새끼 낳은 돼지를 굶기며, 콩섬이나 주자 한들 농우(農牛)가 네 필이니 너를 주고 소 굶기랴? 정말 염치 없고 속이 없는 놈이로다."

위의 대목은 흥부가 형인 놀부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 찾아 갔을 때 놀부가 응대하는 장면이다. 여기서 놀부는 흥부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주의를 끈다. 즉 완성된 모습의 물질을 헐 수 없는 것이 그 이유가 되고 있는데, '섬','노적', '궤돈','가득한 것' 등 다양한 종류의 완성된 형태를 엿볼 수 있다. 즉 물질추구욕은 하나의 완성된 모습을 추구하는 경향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록 물질은 아니지만, 완성된 모습에 대한 추구는 형태심리학(Gestalt Psychology)에서 이미 주장되고 있다.

이상에서 생리적 욕구를 초월할 수 있는 욕구, 완성을 위한 욕구로서 인간의 물욕을 인정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물욕의 표출은 어느 정도까지 용인되고 있는가? 「흥부전」의 전반적인 내용에서 작가는 놀부의 물욕 표출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놀부의 물욕을 탐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놀부가 그제서야 생각이 나기에
"옳지, 화초장이지"
놀부계집의 욕심보는 제 서방보다 한 둘레는 더 큰지라, 좋은 것을 보면 탐을 내다 못해 기절하기가 일쑤요, 장에 갔다가 물건 놓인 것을 보든가 돈 세는 것을 볼라치면 죽어 엎드러져 업혀와서 석달 열흘이 되어야 일어나는 위인이라. 그뿐더러 어찌 새암이 많던지 남의 혼인 구경을 가면 신부의 새로 꾸민 금침을 덮어 땀을 내어야 앙지를 아니하는 년이라, 화초장을 보고서는 수선을 떨기 시작하는데

위의 내용은 놀부 아내의 물욕을 묘사한 부분인데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감이 있지만, 물질에 대한 여러 종류의 소유욕을 망라하여 표현하면서, 놀부 아내의 물욕을 극히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인간의 강력한 물욕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물욕의 표현이 지나칠 경우에는 매우 비판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결국 재물욕이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적정 수준 내에서만 수용되며, 그것이 지나친 경우는

나쁘다는 신념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적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셈이다. 따라서 물욕의 표현이 지나치냐 지나치지 않느냐의 판단은 판단자의 주관적 관점에 달린 것이다.

(2) 빈·부 관

가난하냐 부유하냐 하는 것은 물질의 소유 정도의 문제이며, 빈부는 물질의 유무보다는 더 구체적인 표현이다. 모든 사람은 빈과 부의 연속선상에 위치하게 된다. 조선시대의 경우 대대로 토지 경작권을 상속받은 일부 양반 계층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서민들은 소작농이거나 영세 자작농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거의 한국인들은 가난과 부유함을 어떻게 바라보고 수용했는가? 빈부에 관하여 어떠한 신념들을 형성하고 있었는가를 살펴보자. 여기서는 빈부의 원인을 어디에 귀인하는가의 문제, 가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문제, 가난 극복과 부의 획득 및 유지의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① 빈부의 귀인과 가난 극복

과거의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가난이나 부유함을 무엇 때문이라고 지각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자. 빈부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빈부의 귀인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빈부의 귀인 문제는 흥부전의 전반적인 내용에서 바탕에 깔려있다.

> 흥부의 착한 말을 들으니 못된 심사가 불일 듯하는지라, 눈을 부릅뜨고 팔뚝질하며 꾸짖기를 "이 놈 흥부야! 잘 살아도 내 팔자요, 못 살아도 내 팔자니 형을 어찌 허구한 날 뜯어먹고, 매양 살려 하느냐? 잔말 말고 어서 빨리 나가거라!"
>
> 흥부아내는
> "---애고 답답 설움이야. 이 노릇을 어찌할고? 어느 누군 팔자 좋아 대광보국(大匡輔國)·숭록대부(崇祿大夫)·삼공육경(三公六卿)되어 있어 고대광실 좋은 집에 이몸 팔자 어이 이리 곤궁하여 말(horse)만한 오막살이에 이한 몸을 못 담으니--."
>
> 놀부가 이르기를
> "너도 영치 없는 놈이로다! 내 말을 들어보아라. 천불생무록지인(天不生無祿之人)이요, 지불생 무명지초(地不生 無名之草)라. 문자를 풀어보면 하늘이 내지 않는 자는 벼슬에 못 오르고 땅이 내지 않은 자는 이름없는 인간이라. 너는 어찌하여 복이 없어 나만 이리 보채는가, 잔말은 듣기 싫다."

「흥부전」의 위 대목들은 공통적으로 가난에 대한 운명론적 신념을 보여준다. 놀부나 흥부아내의 대사에서 볼 수 있는 가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신념은 가난이 운명적이라는 것이다. 가난은 하늘의 뜻인 것이다. 하늘의 뜻은 사주나 팔자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가난의 원인은 사주, 팔자와 같이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절대적인 것들이다. 사주가 나쁘고 팔자가 사나워서 생활이 가난한 것이며, 물질을 얻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가난은 자신의 뜻이나 의지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통제력이 미칠 수 없는 외부의 강한 힘에 의해 결정된다는 신념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가난이 외부의 절대적인 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운명으로 여기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난이 괴롭지 않은 것은 아니다.

> "여보 마누라, 슬퍼마오. 가난 구제는 나라에서도 못한다 하니 형님인들 어찌 하시나? 우리 양주가 품이나 팔아 살아가세."
>
> "가난으로 지쳐빠진 이 내 신세, 금옥같이 애중한 지식들을 헐벗기고 굶주리게 하니 이 아니 가련한가? 세상에 주린 사람을 뉘라서 구원하며, 한칠에 마른 고기를 한 말 물로 어찌 살리리? 이 세상에 답답한 일이 가난밖에 또 있을꼬? 팔다리를 다 끊기니, 척부인의 설움이요, 장신궁에 꽃이 피니 판첩여의 설움이요, 소상강 대마외역 적문 날의 양귀비 설움이요, 낙양 옥중에서 고생하던 숙낭자의 설움인들 이 고생에 더할소냐?"

위의 대목은 가난에 지친 흥부내외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가난이 운명적이기에 나라에서도 구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에 가난을 자신의 팔자로 수용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넋두리나 팔자타령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가난이 하늘의 뜻이고 운명적이라면, 그것을 극복하려는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가 개입할 여지는 없는 셈이다. 그렇다면 과거 한국인들은 가난에 대해 팔자타령만 하고 있었던 것인가? 또 개인의 가난을 결정하는 하늘이나 운명은 무작위적으로 주어진다고 보았는가?

"우지마오 우지마오. 안연같은 성인도 안빈낙도 하였었고, 부암에 담을 쌓던 부열이도 어진 임금을 만나 부귀와 영화를 누리었고, 신야에 발갈던 이윤이도 성탕같은 어진 임금을 만나 귀히 되고,----,〈 천불능궁 역색가라〉 하였으니, 우리도 마음만 옳게 먹고 부지런만 하였으면 좋은 시절 만날지 어찌 알리까?"

흥부아내 이르는 말이
"부불삼세요, 빈불삼세는 예로부터 일러 오는 말이니, 그래 설마 상대까지 곤난할까? 마음만 올바르게 가지고서 불의의 재물을 아니 만들면, 자연 신명이 도와 굶어 죽지 아니하리니 울지 말고 서러워 마소."

(제비왕이) "불인 인지심 즉, 인자한 마음을 참지 못함이 성인의 참된 마음이니, 흥부는 과시 어진 사람이라. 공 있는 자에게 반드시 보은함은 근가의 도리이니, 그 은혜를 어찌 아니 갚으리오? 과인이 박씨 하나를 줄 터이니 경은 가지고 나아가 보은토록 하라."

위의 내용은 모두 「흥부전」의 일부이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가난은 하늘이나 하늘의 대행자(임금, 제비왕)에 의해서 극복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즉 가난의 결정자인 하늘이나 운명은 무작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여기에 소극적이나마 가난을 극복하려는 개인의 의지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마음을 옳게 먹고 부지런하면, 불의의 재물을 아니 만들면, 어질고 공이 있으면, 생명을 소중히 하여 미물도 아껴주면, 그리고 소박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면 하늘의 뜻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불변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실한 자세와 도덕적 선행인 셈이다. 즉, 성덕을 통해서만 하늘을 감동시키고,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의 결정자는 여전히 하늘이다. 개인이 아무리 선행을 하고 성덕을 쌓는다 하더라도 하늘이 감동하지 않으면 가난은 극복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난을 극복하려는 개인의 적극적인 의지나 노력은 무시된 것인가? 위의 인용문에서 '빈불삼세(貧不三世)요 부불삼세(富不三世)라'는 표현 속에 가난은 언젠가 극복할 수 있다는 적극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천불능궁 역색가(天不能窮 力穡可)'-노력하는 사람은 하늘도 어쩌지 못한다-란 표현 속에는 적극적 노력으로 가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내포하고 있다.

"슬근슬근 톱질이야, 당기어 주소 톱질이야. 가난타고 설워 마소. 팔자 글러 가난이요, 사주글러 가난이요, 공졸하여 가난이요, 산소 글러 가난이요, 밑천 없어 가난인 걸 뉘를 보고 탓하리요? 가난타고 설워 마소."

위의 인용문은 흥부내외가 박을 타는 장면의 일부이다. 여기에서 가난의 원인은 팔자, 사주, 산소 뿐 아니라 옹졸함, 밑천 없음 등이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이 가난한 것은 사주나 팔자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난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팔자타령이나 넋두리만을 일삼는 것은 현실의 생리적 결핍을 해소할 수 없다. 가난을 무조건적으로 수용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로 귀인 함으로써, 그 가난을 어느 정도는 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위의 인용구와 이어진 다음 구절을 보자.

흥부아내 하는 말이 "산소 글러 가난하면 어찌 큰

댁은 잘 살고, 우리는 가난할고? 장손만 잘 되라는 산소던가? 예여라! 톱질이야, 슬근슬근 다려주소. 복창한엽 성미파에 동작박도 좋을씨고. 당하자손 만세영에 세간 박도 좋을씨고! 이 박 한통 타거들랑 금은보화 나옵소서."

위의 내용에서 홍부아내는 산소가 잘못되어 가난을 만났다면, 왜 같은 형제인 놀부는 잘 살고 자신네는 가난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가난의 원인이 외부적 힘(즉,산소)때문이라면 동일한 영향을 받고 있는 자신들도 역시 가난을 극복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 뿐 아니라 가난 극복의 논리로서 가난의 원인을 운명으로 잘못 귀인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가난의 원인을 운명에만 돌리는 것은 잘못이며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가난을 면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부의 획득과 유지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면 가난 극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하늘의 구제이다. 그런데 하늘의 구제는 도덕적 선행이나 성실이라는 개인의 소극적 노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 운명이라는 커다란 테두리 내에서 개인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도 가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단순히 가난을 극복하는 차원이 아니라 부의 획득 차원에서 개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인가? 앞에서 가난을 극복하려는 개인의 적극적 노력에는 '품을 팔거나 밀천을 토대로 한 장사'가 암시되어 있었다. 다음의 사례는 조선시대의 유교적 관습을 이용한 상업활동이 부획득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허생이 모든 과일을 사들였기 때문에) 대신들의 집에서 잔치나 제사를 지내려고 해도 과일을 구경하지 못해 제삿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할 형편이었다.

과일을 다 처분한 다음 그는 칼, 호미, 무명, 명주, 솜 등을 모조리 사가지고 제주도로 건너가서 그것을 팔아 이번에는 말총이란 이름이 붙은 것은 모조리 사들였다.

"몇 해가 못 가서 나라 안 사람들은 상투도 싸매지 못하게 될 게다."

과연 허생이 장담한 대로 얼마 가지 않아서 나라의 망건 값이 10배나 뛰어올랐다. 말총을 내다 파니 백만 금이 되었다.

위의 내용은 허생이 그 당시 서울 장안의 유명한 부자인 변씨로부터 1 만냥을 빌려 장사하는 과정을 묘사한 부분이다. 여기서 허생은 부를 획득하는 방법으로서 매점매석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는 단순히 아무 물건이나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禮)생활과 관련된 물건만을 독점하고 있다. 잔치나 제사를 지내는데 필요한 각종 과일, 상투를 매는데 필요한 말총 등은 사회생활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물건들이다. 당시의 관습을 이용한 허생의 상업활동에 대한 묘사는 부를 획득하기 위한 개인의 적극적인 노력을 전제로 여기고 있다.

그렇지만 아무나 노력한다고 해서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생의 경우처럼 어떻게 노력해야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지를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부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가? 다음 사례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건 그대들이 알 바가 아닐세. 무릇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생각을 이것저것 길게 늘어놓게 마련이야. 약속은 꼭 지킨다느니, 염려말라느니 하고 말일세. 그러면서도 얼굴빛은 어딘가 구겨져 보이고 한 말을 되뇌곤 하지. 그런데 이 사람은 옷이며 신발이 모두 떨어지긴 했지만, 우선 말이 짤막하고 사람을 대하는 눈이 아랫사람을 내려다보는 듯하며 조금도 부끄러워 하는 기색이 없네. 물질 따위에는 관심이 없고 벌써 전부터 제 살림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어. 그러니 그가 한번 해보고 싶은 장사라는 것도 적은 일이 아닐 게고, 나 또한 그 사람을 한번 시험해 보려는 거야. 게다가 주지 않았으면 모르되, 이미

만 냥을 내주었으니 그때에 그의 이름 석 자를 물어서 무엇 하겠나." 큰 장사꾼이 할 수 있는 말이었다.

위의 내용은 부자인 변씨가 허생에 대한 인상을 그의 식객들에게 들려주는 대목이다. 여기서 변씨라는 큰 장사꾼의 독특한 능력이 잘 드러나고 있다. 상업활동에 필요한 능력을 지닌 허생의 잠재력을 알아보는 부자 변씨의 통찰력이 강조되고 있다. 결국 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적극적인 노력뿐 아니라 독특한 통찰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 한국인들은 절대적인 힘(하늘)과 무관하게 개인의 능력과 노력만 있다면 누구나 부를 획득할 수 있다고 본 것인가?

"자네가 꼭 내게 줄 것이라고 믿은 것은 아니지만, 누구라도 만금을 가지고 있는 장사꾼이라면 내주지 않을 수 없을 거야. 나 스스로 재주를 헤아려보면 넉넉히 만금을 벌 수가 있을 것 같지만, 운명은 저 하늘에 달려 있는 만큼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거든. 그러므로 나를 알아보고 써먹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일세. 반드시 부자가 된 위에 더 부자가 되라고 하늘이 명한 거야. 그러니 돈을 내주지 않을 까닭이 있나. 내 이미 만금을 얻었으니, 그로부터는 그 복을 빌려서 행한 것뿐일세. 그리고 행하면 성공하였지. 만일 내가 내 재산으로 혼자서 일을 시작했다면 그 성패 또한 알 수 없는 일이야."

째보가 톱을 떨어뜨리며 뇌까리기를
"복없으면 나를 귀치 말고 복 있는 놈 얻어 타라!"
놀부가 이르는 말이
"아따 이사람아, 내가 맹세를 철석같이 하였거늘, 다시 자네를 탓할까 보냐? 만일 무슨 소리를 또 하거든 내뺨을 개뺨 치듯 하게."

위 내용중 처음의 것은 변씨와 허생이 친해진 다음 술자리에서 대화하는 장면이며, 나중의 것은 놀부가 째보라는 일꾼을 고용하여 박을 타는 장면이다. 여기서 허생은 부획득의 원인으로 인간의 통찰력과 노력, 복과 운명 등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데, 허생 자신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재주뿐 아니라 변씨라는 복받은 사람을 활용한 탓이며, 복있는 돈을 빌려 썼던 이유이며, 그것은 하늘의 명(命)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자신의 능력이나 재주도 타고난 것이며 이를 알아본 변씨도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또 자신의 노력이 성공한 것은 하늘의 뜻이고 복을 빌려 활용한-복(福)의 전이(轉移)-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복의 전이에 대한 믿음은 박을 타기 위해 일꾼을 고용한 놀부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놀부가 보배를 얻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일을 하는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라면 성공할 수 없다는 믿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한국인에게 부의 획득을 위한 개인의 적극적 노력은 여전히 운명론의 테두리 안에서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가난을 극복하고 부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노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외부 절대자(하늘)를 감복시키는 것이다. 물론 이때 하늘은 자연의 하늘이 아닌 윤리적 하늘이다. 그래서 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성덕을 쌓고 선행을 베푸는 윤리적 실천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자는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발복한 사람인 것이다.

지금까지 부를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한 신념들을 살펴보았다. 앞에서의 하늘이나 운명에 따른 부획득 노력은 주로 밑천(자본)을 바탕으로 한 상업활동에 관한 것이었다. 부의 획득을 위한 노력에는 상업활동외에도 육체적 노력(노동)이 있을 수 있다. 즉 노동을 통해 보상(품삯)을 얻는 방법이다. 노동과 보상의 교환관계에 대한 신념은 보다 일상적인 부획득의 방법이므로, 이에 대한 신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적 교환의 관점에서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투입량과 결과량의 비교이다. 보상은 투입량과 결과량의 비교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연서방, 주린 사람이 영문에 가서 그 매를 맞고 어찌 돌아왔나?"
흥부는 돈을 받아먹으려고 맞았노라 하려다가, 마음이 본디 곧은 사람이라, 바른대로 털어 놓는 말이
"맞았으면 해롭지 아니할 것을, 그것도 복이라고 못 맞았다네."
김씨가 그 말을 자세히 듣고 하는 말이
"자네가 마음씨만은 착한 사람일세. 나도 어디서 들었네만, 무사히 오고서야 돈 달랄 수가 있는가? 내가 마침 지닌 돈이 칠팔 냥이 있으니 쌀 말이나 사다 먹소" 하고 가버리므로, 흥부가 그 사람 가는 것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흥부가 그 사람 가는 것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내가 매 한 개 아니 맞고 남의 돈을 공으로 먹으니 염치는 없거니와, 엽흘 굶어 근자없다고 어찌 할 수 있으랴?" 하고는

위의 대목은 흥부가 김부자라는 사람 대신 매를 맞고 돈을 받을 약속을 했는데, 매품을 팔지 못하고 헛걸음만 하고 난 다음의 내용이다. 김부자의 조카인 김씨의 대사에서, 그리고 흥부의 독백에서 보상이라는 것은 일의 결과가 있어야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결과 중심의 보상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일의 결과가 없이(일을 안했으므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염치없는 행동이 된다. 또한 일을 했지만 결과가 전혀 없다면, 그 일이라는 노력은 보상받을 근거가 없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교환에 대한 신념은 당시의 지배규범인 유교의 경전인 「孟子」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다(성영신 등, 1994). 그러나 위의 사례에서 김씨는 비공식적인 사례비로 흥부에게 칠팔 냥을 건네주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결과에 의한 보상만을 경제 교환의 원리로 삼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미 일을 하기 위해 최소한의 거동을 했으며, 심리적인 투자를 했다면, 그것이 보상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다음의 예는 이에 대한 다른 경우이다.

"여보 연생원, 이번에 김부자 일로 여기로 왔는데 매 한 대 아니 맞았다고 만약에 돈을 아니 주거든, 두말말고 곧장 영문으로만 오면 우리가 무슨 수를 쓰든지 돈백은 받아줄 터이니, 염려 말고 어서 가시오"

위의 대목은 흥부가 감영의 도사령으로부터 위안을 받는 장면이다. 제 3자(즉, 도사령)가 보기에 비록 매를 맞지는 않았지만, 감영에까지 출두한 흥부의 사례는 보상을 받기에 정당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심리적 투자도 보상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경제교환에 대한 전통적인 신념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결과중심의 보상 신념이며, 다른 하나는 인정 중심의 보상신념이다.

그러면 부를 획득한 이후에 사람들은 재물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예컨대, 흥부전의 이야기는 흥부의 일확천금에 관한 것인데 그러한 일확천금을 작가나 여러 등장인물들이 정당하게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여보소 마누라, 정신 차리고 힘써 당겨 주소. 슬근 슬근 톱질이야. 우리 일을 생각하니 엊그제가 꿈이로다. 남달리 고생하다 일조에 부가옹되니, 어찌 아니 즐거우리."

위의 인용문은 흥부가 발복한 다음의 대사이다. 전술했던 것처럼 부를 얻는 것은 하늘의 뜻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늘은 절대적이며, 최고의 정당한 힘이다. 따라서 흥부의 일확천금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나의 복이며 발복이다. 발복은 윤리적 실천을 바탕으로 한 노력의 결과이므로 그 내용이 무엇이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일확천금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그 결과를 복에 귀인하게 되므로 정당할 뿐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부를 획득한 다음의 문제는 획득한 부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획득한 부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다음의 사례에서 그와 관련한 신념들을 보자.

제비왕이 이 말을 듣고 매우 노하여 이로기를

"그 놈이 불의의 재물을 많이 간직하여 전답과 전곡이 넉넉하거늘, 어진 동생을 구제치 아니하니 이는 오륜에 벗어난 놈이려니와 또한 심사가 매우 불량하니 버려 두지는 못하렷다! 너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 줄 터이니 이 박씨를 갖다 주도록 하라."

제비왕의 놀부에 대한 평가를 보면, 부의 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도덕적 선행과 의리의 문제를 들고 있다. 부를 유지하기 위해선 불의의 재물을 구해선 안되며, 형제간의 의(義)를 버려서도 안되고, 심사가 불량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성품이 불량하면 하늘에 의해서 부는 박탈될 것이다. 획득한 부가 하늘의 뜻에 의한 것이므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흥부전」의 경우, 놀부의 사례는 부의 유지와 관련한 하늘의 응징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도덕적 윤리와 경제적 부가 직결된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한번 선택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부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며, 얼마든지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 빈부의 상황역전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었으므로 가난한 현실도 견디어 낼 수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관점은 다음의 내용에서 보다 잘 알 수 있다.

"부불삼세요, 빈불삼세는 예로부터 일러 오는 말이니, 그래 설마 삼대까지 곤난할까? 마음만 올바르게 가지고서 불의의 재물을 아니 만들면, 자연 신명이 도와 굶어 죽지 아니하리니 울지 말고 서러워 마소."

"집안에 돈이라고는 한 푼 남은 것이 없이 가산을 탕진하였으니, 이제는 살아갈 길이 막연코나! 이왕 시작한 일이라, 주판지세요, 고진감래라 하였으니, 나중에야 설마하니 길한 일이 없을까 보냐?" 하고, 놀부는 다시금 동산으로 올라가서 박 한 통을 따다 놓고 째보를 달래며 이르는 말이

위에서 전자는 흥부가 아내를 달래는 장면이며, 후자는 놀부가 박을 타는 내용이다. 여기서 주목을 끄는 문구는 "빈불삼세요, 부불삼세"와 "고진감래"인데, 이러한 용어들은 공통적으로 현 상황이 보다 나은 상황으로 역전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면 이런 기대를 보편적인 신념으로 삼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때로는 근면성 하나를 의지하고, 때로는 신분 상승의 노력을 통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투쟁을 할 것이다. 이러한 극복 정신은 후대, 삼대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가난은 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또 부유한 사람의 경우는 누대에 거칠수록 근면성을 상실하게 되고 태만과 방종이 쉽게 생활습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없는 돈을 버는 것보다는 있는 돈을 쓰는 게 보다 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구제의 대상이 되지만 부유한 사람의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게 상식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언젠가는 부자가 될 수 있고(당대는 아니더라도), 부자도 언제까지나 부자로 남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면, 가난한 삶은 보다 희망적이게 되고, 부유한 삶은 보다 조심스럽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스스로 위안할 수 있는 유일한 탄식은 언젠가는 자신들도 잘 살 수 있다는 기대가 아닐까? 따라서 '고진감래'와 같은 인생관이 형성된 것은 살아남기 위한 자구적인 신념이 될 수 있다. 더구나 마음을 옳게 먹으면 천지신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터에 가난한 사람의 이러한 신념은 당연히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③ 빈부(貧富)와 귀천(貴賤)

한국인의 삶에 있어서 부(富)는 흔히 복(福)의 하위요인으로서 중요하게 고려되어 왔다(최정호,1990). 그런데 복이라는 것은 부를 이루고 유지하는 것만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복의 구성요인에는 부(富)뿐 아니라 귀(貴)도 있다.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는 표현을 사용하고, 부귀는 하늘에 달려있다고 말한다(論語, 안연5). 이렇듯 부와 귀는 항상 동시적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고 빈과 천(賤)도 마찬가지이다. 즉 빈부와 귀천의 문제는 동시에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 한국인들이 빈부와 귀천의 관계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의 한국인들은 부와 귀, 빈과 천을 공변하는 것으로 보았는가 혹은 괴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는가? 부와 귀를 공변하는 것으로 보느냐 혹은 별개의 문제로 보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귀천의 개념 정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귀천은 우선 신분의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가령, 귀천이 계급의 높고 낮음, 벼슬의 높고 낮음으로 여겨진다면, 이는 외현적인 귀천의 내용이 된다. 그리고 인격의 높고 낮음, 덕의 있고 없음으로서 귀천이 있을 수 있다. 고매한 성품, 군자의 인격 등은 내면적 귀의 내용에 해당될 것이다.

먼저 귀를 신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귀와 부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다음을 보자.

> "건륭 10년 9월에 이 증서를 만든다. 양반을 팔아서 관곡을 갚았으니 그 값이 곡식으로 천 석이나 된다. 원래 양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중략〉-- 절대로 비루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하고, 옛사람을 본받아 그 뜻을 숭상해야 할 것이다.--〈중략〉-- 화로에 손을 쬐지 않고, 말할 때 침이 튀지 않게 한다. 소를 잡아먹지 않고, 돈 놓고 노름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백 가지 행동이 만일 양반과 틀릴 때에는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가서 고치게 할 것이다." -- (중략)--
> "하늘이 이 백성을 낼 때, 네 종류의 백성을 만들었다. 이 네 가지 백성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선비요, 이것을 양반이라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아야 한다. 글만 조금 하면 크게는 문과로 나가게 되고 작아도 진사는 된다. 문과의 홍패라는 것은 크기가 두 자도 못되지만, 여기에는 백 가지 물건이 갖추어져 있다. 이것을 돈자루라고 부른다. 진사는 나이 30에 초사를 해도 이름이 나고 딴 모든 벼슬도 할 수가 있다. 귓머리는 일산 바람에 희어지고, 배는 종놈들의 '예!'하는 소리에 불러진다. 방에는 기생이나 앉혀두고, 뜰에 서 있는 나무에는 학을 친다. 궁한 선비가 되어 시골에 살아도 자기 맘대로 할 수가 있으니, 이웃집 소를 가져다가 자기 밭 먼저 갈고, 마을 사람을 불러다가 내 밭 먼저 김매게 한다. 이렇게 해도 어느 누구도 욕하지 못한다. 잡아다가 잿물을 코에 들이붓고 상투를 잡아매어 벌을 준대도 아무도 원망하지 못한다."
> 부자는 그 증서를 발자 혀를 내밀어 보이면서 말했다.
> "제발 그만두시오. 맹랑합니다그려.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이시오?"

위의 내용은 「양반전」에서 부자에게 양반 매매 증서를 만들어 주는 장면이다. 위에서 보면 조선조에 신분상 귀한 양반은 쉽게 부를 획득할 수 있었고, 양반이 아닌 일반 서민들은 부를 이루기 어려웠다. 그래서 귀하면 부하고(귀즉부), 천하면 가난하다(천즉빈)는 믿음이 일반적이었다고 하겠다. 하지만 당시 양반이라고 해서 모두 잘 살았던 것은 아니다. 조선 초기와 달리 중•후기에는 양반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양반 계층에 토지 경작권이나 소유권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양반이라 하더라도 벼슬을 해야만 부를 이룰 수 있었다. 그래서 벼슬은 곧 부, 귀즉부였던 것이고, 천즉빈이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양반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벼슬하지 못한 양반 즉 가난한 양반(殘班)이 생겼고, 상업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양반 계층이 아닌 천한 신분의 부자도 생겨났다.

> 허생은 집에 비바람이 새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언제나 글읽기만을 좋아했으므로 가난하기 짝이 없었다. 그 아내가 삯바느질을 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했다.
> 어느 날, 허생의 아내는 배고픈 것을 참다못해 눈물을 흘리며 푸념을 늘어놓았다.
> "당신은 한평생 과거도 보러 가지 않으면서, 어쩌자고 글만 읽는단 말입니까?"
> 그러나 허생은 태연자약, 껄껄 웃었다.
>
> "당신이 평생 앉아서 글만 읽더니 이제 관곡을 갚을 방도도 없게 되었구려. 에이! 더럽소. 양반 양반 하더니 그 양반이란 것이 한푼 값어치도 못 되는 것이로구려."

위에서 앞의 내용은 허생의 생활 태도에 대해 그의 아내가 하소연을 하는 장면이고, 뒤의 내용은 「양반전」에서 양반의 아내가 양반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아무리 양반이 신분상 귀하다 하더라도 벼슬을 하지 못하면 가난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벼슬이라는 또 다른 귀를 얻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신분상 귀하면서도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귀를 지키기가 어렵게 된다. 그리하여 천한 신분이어서 가난한 것(천즉빈)이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천하게 된다(빈즉천)고 본 것이다. 그러면 비천한 신분이면서 부유한 경우는 어떨 것인가? 다음 구절을 보자.

"양반이란 아무리 가난해도 항상 존귀하고 영화스러운 것, 나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항상 비천을 면치 못한단 말이야. 말을 한 번 타보지도 못하고, 양반만 만나면 쩔쩔매고 코를 끌고 무릎으로 기어야 하니 참으로 더러운 일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양반이 관곡을 못 갚아서 궁색을 당하게 되었다니, 이제는 그 양반을 지탱할 수가 없을 거야. 그러니 내가 그 양반을 사서 행세하는 게 어떻겠는가."--.

놀부가 이르는 말이
"방정맞고 요사한 년 물러나거라! 이 박은 정통 금박일지니, 재물 얻으면 네년일들 귀히 아니 되랴? 잔말 말고 우리 두 양주 정성들여 켜 봅세!"

위에서 앞의 내용은 「양반전」의 부자가 그 자식들에게 양반이라는 신분을 돈으로 사는 것에 대해 묻고 있는 구절이며, 나중의 내용은 「흥부전」에서 놀부가 그의 아내를 구박하는 장면이다. 전자에서는 돈으로 신분을 사는 것이 가능하며, 양반을 사면 귀해질 수 있다는 신념을 보여준다. 후자에서는 재물을 얻으면 가족도 귀하게 된다는 생각을 나타낸다. 부라는 것이 귀를 달성하는 수단이 되는 셈이다. 결국 과거 한국인들은 신분이나 벼슬이란 측면에서 귀하면 부유하고 비천하면 가난하다는 믿음과, 신분이나 벼슬에 관계없이 부유하면 귀하고 가난하면 천하다는 믿음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고 하겠다. 즉 빈부와 귀천의 갈등적 공변관계를 수용하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귀를 신분이나 벼슬과 같은 외현적 측면에서 고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면 귀를 외현적인 것이 아닌 내면적인 측면, 즉 덕이나 인품이라고 생각할 때에도 과연 빈부와 귀천은 공변한다고 보고 있는가? 다음의 사례를 보자.

"여보 아이 아버지 내 말씀 좀 들어보오. 부질없이 청렴한 체하지 마오. 안자(顔子)의 누항단표(陋巷單瓢) 주린 염치는 삼십에 일찍 죽고, 백이숙제(伯夷 叔齊), 주린 염치 수양산에 굶어 죽으니 청루(靑樓)의 젊은 갸시 웃었으매, 부질 없는 청렴 말고 저 자식들 살려보오. 저 건너 아주버님댁에 가서 쌀이 되든 돈이 되든 양단간에 얻어 옵소."

위의 내용은 흥부아내가 가난을 견디다 못해 흥부를 닥달하는 장면이다. 가난한 양반은 벼슬이라는 외현적인 귀의 상태로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신분상 양반(귀)이기 때문에 비천한 일을 할 수 없으므로 계속해서 학문에 정진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외현적인 귀를 얻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면적인 귀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여기서 내면적 귀는 덕을 쌓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늘의 구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제적 부를 얻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가난을 받아들이고 덕이나 도라는 내면적 귀를 즐긴다(安貧樂道)는 유교의 이상적 관점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의 삶에서 내면적 귀만을 추구한다고 해서 가난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에서처럼 내면적 귀는 부질없는 청렴으로 비판받게 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내면적 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와 연결되지만(귀즉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가난과 연결되어 있는 셈이다(귀즉빈).

(3) 돈의 심리적 의미

앞에서 추상성의 수준에 따라 물질과 마음의 관계, 빈•부관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인 수준의 개념인 '돈'의 전통적 의미를 논의해 보자. 조

선시대의 경우 화폐를 통한 경제적 교환을 본격화한 것은 각종 공과금을 상평통보로 납세(錢納)할 수 있게 한 인조 11년(1633년)부터라 할 수 있다. 이때부터 화폐는 일반 서민들에게 어느 정도 통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돈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자.

> 허생은 ---갔다. 그리고 도둑의 괴수를 만나 설득하기 시작했다.
> "너희들 천 명이 천금을 노략질해서 나누어 가진다면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돌아가느냐?"
> "그야 한 사람에 한 냥이지."
> "그럼 너희들에게 처는 있는가?" "없소."
> "그럼 논밭은?" "흥, 밭이 있고 처가 있으면 왜 도둑질을 해?"
> "정말 그렇다면 왜 장가를 들어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농사를 짓지 않나? 그렇게 하면 도둑이란 더러운 이름도 듣지 않을 테고, 살림살이하는 부부의 재미도 있을 것이고, 아무리 밖으로 나가서 쏘다닌다고 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을 테니 얼마나 좋은가? 길이길이 의식이 풍족할 것이다."
> "허허, 누가 그걸 몰라서 그래?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
> "나로 말하면 장사에 솜씨가 있어, 그 돈으로라면 넉넉히 아홉 나라 임금의 머리라도 살 수 있었지만, 그것을 바닷속에 던지고 온 것은 이 나라에서는 쓸 곳이 없기 때문이었네."
>
> "이놈 놀부야, 돈이 중하냐 목숨이 중하냐?"
> 놀부가 울며 대답하되
> "사람 생기고 돈이 났으니 돈이 어찌 중하다 하오리까?"
> 초라니가 꾸짖어 가로되 "이놈, 그러면 돈 오천 냥만 시각내로 바치렷다!"
> 놀부는 할수 없는지라 돈 오천냥을 내어 주며
> "분부대로 돈을 바치오니 다음 박통 속 일이나 자세히 일러 주소."

위의 첫 내용은 허생이 도적들을 모으는 장면이며, 두 번째 내용은 허생이 변씨에게 돈을 갚은 다음 그와 친해진 후의 대화이며, 세 번째 내용은 놀부가 박에서 나온 초라니들과 대화하는 장면이다.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돈이 없다는 것은 사람을 도적으로 만들만큼 강력한 것이며, 그리고 돈은 "아홉 나라의 왕의 머리"도 살 수 있을 만큼 가치있는 것이다. 또한 돈을 인간의 생명과 비유할만큼 귀중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돈은 초유능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삶에서 충분조건의 의미를 가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돈이 중요한 것이 사실인 반면 그 돈을 벌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공돈이나 덤으로 돈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다. 공돈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흥부전에서도 나타난다.

> "복없으면 나를 권치 말고 복 있는 놈 얻어 타라!" --〈중략〉-- 하고, 공돈 이십냥을 삯전외에 더 주니, 째보놈이 못 이기는 체하고 받아서 공무니에 거둬 놓고 박을 탈 새 --.

위의 내용은 일꾼 째보가 놀부로부터 구박을 받고 난 다음, 더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놀부가 공돈이라는 덤을 주는 대목이다. 째보의 행동을 보면, 공돈은 하기 싫은 일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일로 바꾸어 놓는다. 이럴 경우 체면이나 염치도 개입할 수 없게 된다. 돈 앞에서는 염치라는 사회적 예도 벗어버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공돈에 이러한 평가는 앞에서 언급했던 돈의 초유능성에 대한 믿음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 한국인들은 돈에 대한 이러한 황금 만능주의의 신념만을 수용하고 있었던 것인가? 가령, 「허생전」에서 허생은 많은 돈을 벌어 쓸 곳이 없다는 이유와 글읽는 선비에게 돈이 중요치 않는다는 이유로 돈을 바다속에 버리고 있으며, 「양반전」에서는 양반이 지켜야할 행동중 하나는 손으로 돈을 만지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렇듯 조선조의 지배 규범인 유교에서는 오히려 돈을 비천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돈의 초유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돈을 천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돈이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충분한 돈을 소

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때로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 경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행동이나 빌리는 사람의 행동을 보면 돈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돈의 유능성이란 측면에서 이미 돈을 가진 자는 더 높은 위치에 서게 되고, 돈을 빌리러 오는 자는 돈 가진 자를 존중하고 자신을 낮춰야 하며 공손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그러므로 돈 빌리는 사람의 행동은 비굴해질 수밖에 없고, 구차스런 변명을 늘어놓아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결심을 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례를 보자.

> 변씨가 정색을 하고 말했다. "이건 그대들이 알 바가 아닐세. 무릇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생각을 이것저것 길게 늘어놓게 마련이야. 약속은 꼭 지킨다느니, 염려 말라느니 하고 말일세. 그러면서도 얼굴빛은 어딘가 구겨져 보이고 한 말을 되뇌곤 하지. 그런데 이 사람은 옷이며 신발이 모두 떨어지긴 했지만, 우선 말이 짤막하고 사람을 대하는 눈이 아랫사람을 내려다보는 듯하며 조금도 부끄러워 하는 기색이 없네.--"

위의 인용문은 변씨가 그의 식객들에게 허생의 돈빌리는 자세에 대해 말하는 대목이다. 변씨는 여기서 돈빌리는 사람의 일반적인 태도와 허생의 태도를 비교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주 경험하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사람의 일반적인 행동에 대한 어떤 기대를 형성하기가 쉽다. 즉 일반인들은 유능성을 지닌 돈앞에서 비굴해지거나 구차하게 굴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허생과 같이 돈의 유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돈을 천시하는 사람은 돈앞에서 구차해지거나 부끄러운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인간 관계 속의 물질 가치관

지금까지는 인간 관계가 개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질과 관련하여 형성된 신념들의 집합인 물질 가치관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그런 종류의 가치관은 아마도 인간 관계의 맥락에서 변형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물질과는 관계없는 인간 관계 그 자체에 대한 가치관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런 인간 관계 가치관은 물질 가치관이 경제 행동으로 표출될 때 하나의 조절변수(moderator)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제 행동의 선행 요인으로 고려되는 경제 가치관을 분석할 경우 인간 관계의 다양한 측면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인간 관계 속에서의 물질 가치관'을 분석할 것이며, 인간 관계 상황을 개인 자신만이 고려되는 상황, 가족 관계 상황, 사회적 관계 상황 등으로 나누어서 물질 가치관을 논의하고자 한다.

(1) 개인과 물질

인간 관계를 고려하여 물질 가치관을 논의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가치관이다. 개인이 '자신은 ~ 해야 한다' 혹은 '자신은 ~한 사람이다'와 같은 다양한 신념들을 가질 때, 1절에서 논의했던 보편적인 물질 가치관은, 물질과는 독립적으로 형성된 자신에 대한 다양한 신념들에 의해 그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물질 가치관의 내용들을 살펴 볼 것이다.

① 수양과 물질

조선시대의 지배규범인 유교에서는 인간의 선천적인 욕구를 두 가지로 가정하고 있다. 하나는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기본적인 생물학적 욕구이며, 다른 하나는 仁·義·禮·智를 실현하고자 하는 본성실현의 욕구이다. 전자에 주로 얽매이는 인간형을 小人이라 하고 후자에 주 강조점을 두는 사람을 大人이라 하였다(성영신 등, 1994). 따라서 조선조의 한국인들

에게 있어서 자신에 대한 바람직한 인간관은 자신을 닦는 것-修養 또는 修身-이고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에 대한 관점은 현실의 삶에서 필요한 물질에 대한 일반적인 신념과 대비를 이루게 된다. 가령 다음의 경우를 보자.

> 성덕(聖德)을 본을 삼고 악한 일 멀리 하며, 물욕(物慾)에 탐이 없고 주색(酒色)에도 무심터라. 흥부 마음 이럴진대 부귀를 바랄소냐?

위의 사례는 흥부의 생활 태도를 묘사한 부분이다. 인간의 본성을 실현해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물질은 추구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성덕을 본받는다'는 신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앞절에서 논의했던 물질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여러가지 신념 중 '물질은 마음의 안정을 해친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물질을 추구하면 안된다는 좀더 구체적인 물질에 대한 신념을 가지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나 자기자신을 위한 물질추구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배제해야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가령 자기 자신을 이상적인 군자나 대인이 아닌 소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물질 추구는 반드시 부끄러운 것으로 지각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보통사람(小人)으로 간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리적 욕구 충족은 당연한 것이고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물질은 배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물질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온다'는 물질에 대한 관점을 당연하게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흥부전」에서 놀부나 그의 아내의 경우, 혹은 「허생전」에서 부자 변씨 등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물질 추구에 있어서 예(禮)

위에서는 조선조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한 물질추구는 배제해야 한다'는 믿음과 '자신의 생리적 욕구충족을 위한 물질 추구는 당연한 것'이라는 믿음이 공존하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이중적인 신념구조는 풍요로운 물질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계층이나 절대적 결핍 상황에 놓여 있었던 대다수 서민층에게 갈등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을 위한 물질추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이상적 신념을 고수하고 있었던 가난한 양반 계층은 현실의 삶에서 자신의 이상적 관점을 일관하게 유지할 수만은 없었다고 하겠다. 가령, 「흥부전」의 다음 내용을 보자.

> 흥부는 이말을 듣고, 마지못하여 형의 집으로 건너간다. 흥부가 치장 차리고 가는 거동을 볼작시면, 앞살 떠진 헌 망건에 물렛줄로 당줄을 달아쓰고, 모자 빠진 헌 갓을 실로 총총 얽어매어 죽령 달아쓰고, 깃만 남은 중치막에 동강동강 이은 술띠로 흉복(胸腹)통을 눌러대고, 세살부채 손에 들고, 서흡(三合)들이 오망자루를 공무니에 비슷차고, 바람맞은 병자처럼 비슬비슬 건너간다.
>
> "여보 마누라, 읍내에 다녀오리라"
> 하고, 행장을 차리는데, 헝클어진 머리에다 헌 망건을 눌러 쓰고, 울근불근 살이 드러나 보이는 다 떨어진 고의와 적삼에 헌 행전을 무릎 밑에 높이 치고, 양때만 남은 해진 갓에 죽령을 달아 쓰고, 노닥노닥 기운 중치막을 행세차로 떨쳐 입고 한뼘 길이 곰방대를 손에 쥐고서, 어쓱비쓱 갈짓자로 걸어 읍내로 들어가 길청을 찾아 가니, 이방이 웃자리에 앉았기에 흥부가 마루위로 간신히 올라서며, 당장에 죽어도 반말짓거리로--.

인용문 중 앞의 내용은 흥부가 놀부집에 곡식을 얻으러 가는 장면이며, 뒤의 내용은 흥부가 환곡(還穀)을 얻기 위해 관청에 가는 장면이다. 조선조 사람들에게 특히 양반 계층에서 의복은 예의 상징이며, 의복을 입는 격식의 중요성은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예(禮)라는 의미 자체는 내용과 형식의 조화를 뜻하는 것이다(論語, 학이12). 그렇지만 형식이라는 측면에서 예를 지키기 위해서

는 아무리 가난해도 의복을 차려입어야 한다. 위에서 홍부의 사례는 그러한 사실을 예시해 주고 있다. 즉, 자신을 위해 물질추구를 배제해야 한다는 신념이 아무리 강해도 예 생활과 관련해서는 그런 신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힘든 것이다. 물론 예를 지키는 것은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본성을 실현한다는 측면이 내포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예를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관계없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예를 차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물질들에 중요성을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럴 경우 자신을 위한 물질추구는 부끄러운 것이다라는 신념은 유지되기 어려운 것이다. 즉 예와 관련해서는 물질추구가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없다.

> 자개함농, 반닫이며, 유장, 봉장, ---, 샛별 같은 요강, 타구 가득히 벌어 놓고, 우단이불 비단요며, 원앙금침 잣베개를 반닫이에 쌓아 놓고 사랑치레 더욱 좋다.
> 용목쾌상, 벼룻집, 화류문갑, 가께수리, 용연벼루, 거분연적, ---, 황홀하게 벌여 놓고, 서책을 쌓았으되 천자문, 유합, 동문선습, 사략, 통감, 논어, ---, 대학, 중용, 깁깁이 쌓아놓고 그 곁에 순대모안경, 화류체경, 진묵, 당묵, 순황모 무심필을 산호필통에 꽂아 놓고, 각색 지물이 다 나온다. 낙곡지, 별백지, 초첨지, 간지, 주지, 피딱지, 갓모, 유삼유지, 식지 다 나온다.
> 다시 피륙이 나온다.-(중략)-. 흥부아내 좋아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말이
> "빨강단 파랑단이 퍽도 많이 나온다. 우리 한풀이로 비단으로 다 해서 입어 봅시다."
> 비단머리, 비단댕기, 비단가락지, 비단귀개, 비단저고리, 적삼, 치마, 바지, 속것, 고쟁이, 버선까지 비단으로 만들어 놓으니, 흥부가 하는 말이
> "여보 마누라, 나는 무엇을 해 입을고?"
> 흥부아내 대답하기를
> "아기아버지는 비단갓, 비단망건, 당줄, 관자까지 모두 비단으로 하고, 그것이 만일 부족하거든 비단으로 큼직하게 자루를 만들어 내리 쓰시오."

위의 구절은 흥부내외가 둘째 박을 탔을 때의 장면인데, 온갖 장식품과 문구류가 나온 다음에 의복과 관련된 물건들(온갖 비단)이 나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흥부내외의 반응은 예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가운 것으로 여기고 있다. 비단옷으로 치장하는 것이 설사 한풀이성 소비가 되더라도 부끄러울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러나 물질 소비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예 형식(禮形式)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예의 내용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두 눈이 뚫어질 듯이 기다릴 무렵 흥부아내의 거동 보소. 깃만 남은 헌 저고리와 떨어진 누비바지에 앞만 남은 몽당치마를 떨쳐입고, 목만 남은 헌 버선에 뒤축 없는 짚신 끌고 문밖에서 바장이며 어린아이 달랠 적에 --.

위에서 흥부 아내의 옷맵시는 형식을 중요시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가난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가난에 맞는 옷을 차려입음으로써, 예의 내용에 충실하려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여기서 흥부 아내는 대인관계의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의 형식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있으며, 가능한대로 예의 내용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가족 관계와 물질 추구

인간 관계의 두번째 틀은 가족 관계이다. 특히 가족 관계는 우리나라 문화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물질 가치관의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 가족 관계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가족 관계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 부분 맥락별로 물질 가치관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 볼 것이다. 가족 관계는 부모지향 관계, 형제 관계, 부부 관계, 자식지향의 관계 등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① 부모를 위한 물질 추구

전통적으로 자식과 부모의 심리적 관계는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만이 아니라 부모 사후에도 유지된다.

효(孝)의 실천이 인간도리의 근간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효의 실천은 정신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효의 실천에서 정신적 봉양과 물질적 봉양은 모두 필요한 것이고, 양자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효를 실천하기 위해 물질은 필요 조건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 물질을 추구하지 않으며, 가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부모를 위한 물질적 봉양은 어려운 일이다. 이럴 경우 부모를 위한 물질적 봉양 자체가 자신의 본성을 실현하는 한 측면으로 본다면 물질은 오히려 추구 대상이 된다. 결국, 자신을 위한 물질 추구는 안되지만 부모를 위한 물질 추구는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성영신 등,1994).

그러면 자신을 위해 물질 추구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 부모를 위한 물질 봉양은 어떠할 것인가?

> 이때 놀부는 세간과 논밭을 다 차지하고서 저 홀로 잘 입고 잘 먹으며, 제 부모 제삿날이 돌아와도 제물은 아니 장만하고서 돈으로 대신 놓고 지내는데, 편값이면 편값이라, 과실값이면 과실값이라 하여 각각 써서 벌여 놓고 제사 흉내를 내다가는 상을 물린 다음에 하는 말이 「이번 제사에도 아니 쓰노라 아니 쓰노라 하였건만, 황초값 닷푼은 온데 간데 없도다.」하는 따위니라.

위의 내용은 놀부가 부모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다. 여기서 놀부는 예의 형식을 갖추어 부모의 제사를 준비하였으나, 실제의 제수(祭需) 대신에 종이에 그 각 제수감을 적어 놓고서, 꼭 필요한 종이 값과 양초 값이 들어 갔음을 탄식하고 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부모 제사에 재물을 올렸으며, 그리고 나서 왜 놀부는 최소한의 재물 소비를 아쉬워 하는가? 이 경우에도 부모를 위해서는 생전이든 사후이든 물질적 봉양을 해야된다는 믿음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후 부모에 대한 물질적 봉양이 '자신을 위한 물질 추구'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자신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선 물질이 필요한데, 이 소중한 물질을 부모 제사에도 바쳐야 되는 것이다. 이로부터 놀부는 부모의 제사에 대한 보편적 신념과 자기자신의 물질추구 신념 사이에 갈등을 겪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놀부는 제사 흉내만 낸 것이다. 즉, 제례의 형식만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놀부의 행동은 부정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핏줄의 의미뿐 아니라 물질적 측면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다음의 사례에서도 발견된다.

> "이놈 놀부야, 네 아비 개불이와 네 어미 동너가 댁종으로 드난살이하다가 모야무지 오밤중에 도망한 지 수십년이거늘 이제야 찾았구나. 네 어미와 아비 몸값이 삼천 냥이니 당장에 바치렷다!"

위의 내용은 박에서 나온 생원이 놀부를 다그치는 장면이다. 여기서 우리는 빚이라는 것도 상속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채가 상속될 수 있는가'라는 법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우리 선조들에 있어서 상속은 모든 면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다. 유산만이 아니라 부채나 업보까지도 상속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보편적인 것 같다. 가족주의 문화에서 자식은 부모의 얼굴이며 대리인이고 연장선이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이 물질에 대해 어떠한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느냐에 관계없이 부모를 위해서는 물질 봉양을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또 부모 봉양을 위한 물질 추구를 당연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② 형제관계와 물질 추구

부모와의 관계에서 효가 중요시 되었다면, 형제간의 관계에서는 우애가 중요시 되었다. 조선조의 지배 규범인 유교에서는 형은 아우를 사랑하고 아우는 형을 공경해야 한다는 믿음이 강조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형제 관계에 물질이 매개물로 들어오면 어떠할 것인가? 형제 관계와 물질 가치관은 어떻게 조합되는가?

형제는 오륜(五倫)의 하나요, 한몸을 쪼갠터라. 이러므로 부귀와 화복(福福)을 같이 하는 것이니 어떤 형제는 우애(友愛)가 있고, 어떤 형제는 부제(不悌)할까?

위의 구절은 흥부전의 첫 문장이다. 여기서 작가는 형제는 한 핏줄이므로, 우애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제는 한 몸을 쪼개 나눈 것이므로 네 물건 내 물건의 구분이 없고 빈부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제간 우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부의 공유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내용을 생각해 보자.

천하에 몹쓸놈이 하루는 생각하되, 동생네 가솔을 내쫓으면 양식도 남거니와 용처도 덜하지라, 저희 부부가 의논하고서 흥부를 불러 이르는 말이 "형제라 하는 것은 어려서는 같이 살되 처자를 갖춘 다음에는 각기 생애하여 사는 것이 떳떳한 법이니, 너는 처자를 데리고 나가 살라" 흥부는 깜짝 놀라 울며 애걸하되 "형제는 수족 같으니 우리 단 두 형제가 홀어져서 살면 돈목지의(敦睦之意)가 없을 것이니, 형님은 다시 생각하옵소서" 그렇다고 놀부가 본디 집 한 간 변통하여 주고서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건(乾) 으로 내보내려 하다가, 흥부의 착한 말을 들으니 못된 심사가 불일 듯하는지라, 눈을 부릅뜨고 팔뚝질하며 꾸짖기를 "이놈 흥부야! 잘 살아도 내 팔자요, 못 살아도 내 팔자니 형을 어찌 허구한 날 뜯어먹고, 매양 살려 하느냐? 잔말 말고 어서 빨리 나가거라!"

위의 대목은 놀부가 동생 흥부를 내쫓는 장면이다. 놀부의 말을 빌리면, 형제는 어려서는 함께 살지만 자라서 일가를 이루면 오히려 따로 사는 것이 떳떳한 것이다. 그래서 장성한 후에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염치없는(예의 없는) 행동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형제의 삶은 각기 다른 것이고 또 사람은 각자의 팔자에 의해 살아가야 된다는 신념이 강할 경우, 형제의 정과 부의 공유는 관계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형제의 정에 의존하여 재물을 얻고자 하는 행동은 염치없는 행동이 된다. 그리고 놀부만이 그런 행동을 염치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며, 흥부도 자신의 몰염치를 인정한다. 다음 내용은 위의 연속 구절이다.

"애고 형님, 그 말씀이 왠 말씀이요? 마오, 마오, 그리를 마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형님앞에 비나이다. 세끼를 굶어 누운 자식 살려낼 길이 전혀 없어 염치코치 불구하고 형님댁에 왔사오니, 동기의 정을 돌보시와 벼가 되나 쌀이 되나 양단간에 주옵시면, 품을 판들 못 갚으며 일을 한들 공하리까? 아무쪼록 동기의 정을 생각하사 죽는 목숨 살려 주옵소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흥부는 물론 동기의 정에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염치의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결국 놀부의 논리를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형제간 정이나 우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신념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부의 공유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형제간 부의 공유에 대한 믿음은 결혼을 기점으로 하여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신념의 분화가 명확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놀부의 경우를 보자.

"아따 이놈아, 내것이 네것이요, 네것이 내것 아니냐? 네 계집이 내 계집이요, 내 계집이 네 계집이니 무슨 관계가 있으랴마는, 계집을 못 주겠다 하니 화초장이나 보내어라! 만일 그도 못하겠다면 온 집에다 불을 쌀놓으리라!"

위의 내용은 흥부가 발복하였다는 말을 듣고 놀부가 흥부에게 재물을 달라고 추궁하는 장면이다. 여기서 놀부는 이때까지 분가 후에 형제간 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믿음으로 일관하였는데 여기서는 동기간임을 강조하며, 계집과 화초장을 내놓으라고 다그치고 있다. 동기간에 부귀화복을 공유해야 한다는 믿음은 자신의 재물획득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형제 관계에서 부의 공유의 문제에 대한 뚜렷한 구분은 없었던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물질에 대한 관점에 따라 형제 관계에서 빈부는 공

유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③ 자식을 위한 물질 추구

예나 지금이나 부모가 자식을 부양하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자식 부양은 물질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물론 이러한 물질적 부양은 자애(慈愛)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여보 아이 아버지 내 말씀 좀 들어보오.(중략), 부질 없는 청렴 말고 저 자식들 살려보오. 저 건너 아주버님 댁에 가서 쌀이 되든 돈이 되든 양단간에 얻어 옵소"

한손으로 물레질 왱왱하면서
"아가아가, 우지 마라, 엊저녁에 김동지네 보리방아 찧어 주고 쌀 한 되 얻어다가 너희들만 끓여 주고, 우리 양주는 여태까지 잔입이라. 너희 부친이 건너마을 큰댁에 가셨으니 돈이 되나 쌀이 되나 양단간에 얻어 오면 밥도 짓고 국고 끓여 너도 먹고 나도 먹자. 우지 마라. 아가 아가 우지 마라."

흥부아내는 이 말을 듣자 몹시 놀라 하는 말이
"여보 아이 아버지, 매품 말이요? 남의 죄를 어찌 알고 대신이라니 원 말이요? 살인죄를 범했는지 강도죄를 범했는지 사기죄를 범했는지 남의 죄를 어찌 알고 그런 말을 하시오? 만일 영문에 올라갔다가 여러 날을 굶은 몸에 곤장 맞게 되면 몇 대를 아니 맞고 쓰러져 죽을 것이니, 어서 가서 그 일일랑 거절하오. 마오 마오 가지 마오, 만일에 갈 양이거든 나를 죽여 묻고 가오. 내 굳 죽어 세상 모르면 그는 응당 가려니와, 나를 살려 두고서는 못 가리다. 가지마오, 가지 마오, 제발 내 말 듣고 가지 마오. 만일 맞다가 아이 아버지 매맞아 죽게 되면 뭇초상이 날 터이니 부디 내 말 갈시 마오."
아내가 이렇듯 강권하니 흥부가 옳게 듣기는 하나, 돈 삼십냥이 눈 앞에 어른거리며 볼기 몇 대만 맞고 나면 그 돈 삼십냥을 공돈같이 쓸 생각에 군침이 솟는지라, 흥부는 슬며시 마누라를 얼려 본다.
"쓸데없는 이 볼기짝, 감영으로 올라가서 볼기 삼십대만 맞고 나면 돈 삼십냥이 생길 터이니, 엽냥은 고기 사서 매맞은 소복하고, 엽냥을 쌀을 팔아 온 식구가 포식하고, 엽냥을 소를 사서 스물 닉달 우어러 주었다가 그 소를 팔아 말아들 장가 들이고, 그 놈이 아들 낳으면 우리에게 손자되니 그 아니 경사이랴?"
아내가 듣기에 사리에 맞아 보이나 ---.

위의 내용들은 흥부와 흥부아내가 자식에 대한 물질적 부양의 의무감을 잘 표현해주는 구절들이다. 위에서 보듯이 자식을 물질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믿음과 자기자신을 위해 물질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믿음은 정면으로 상치한다. 자식을 부양하지 못하는 처지에 수신이나 청렴은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만다. 자식을 위한 물질 추구는 자신의 염치보다 우선하는 것이다.본성을 실현하고 물질을 멀리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식을 물질적으로 부양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본성 실현 욕구(성장 동기)는 물론이고 신체적 안전이나 생리적 욕구까지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매를 맞고서라도 자식을 부양할 수 있는 돈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횡재에 가까운 것이다. 따라서 자식을 위한 물질 추구는 거의 무조건적이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이 들어도,그 가난이 운명이고 팔자라 해도 자식을 위한 물질 추구는 해야 한다. 이러한 물질 추구는 당장의 의식주 해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위의 인용문 중 마지막 구절에 표현된 흥부의 대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또 자손의 번창을 생각해야만 한다. 흥부가 매를 맞고 벌 돈 30냥의 활용 계획을 보면, 자식을 위한 투자의 생각이 단순히 자식이 잘되길 비는 것이 아니라, 혈통을 계승하는 일과 관련된 것이다. 또 이러한 계획은 흥부의 생각만은 아니며, 흥부 아내에 의해 "사리에 맞는" 계획으로 동의를 받는다. 자손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가족주의 문화는 부모와 자식이 연속선상에 있음을 핵심으로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손은 자신이나 조상의 또 다른 모습이며, 그런 연속선으로 하나의 가문이 된다. 그 가문의 피가 자식을 통해 미래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결국 자식을 위한 물질 추구에 대한 신념은 개인의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핵심적인 신념들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부부 사이의 물질 추구

부부 관계에서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입장과 남편에 대한 아내의 입장으로 나누어 살펴 볼 것이다. 우선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와의 관계를 고려해 보자. 남편은 가장으로서 자식에 대한 물질적 부양 뿐 아니라 아내에 대한 부양 책임도 진다. 가장인 자신이 물질을 추구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내의 마음의 안정은 물질과 긍정적인 관계에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물질 가치관과는 상관없이 아내의 물질 가치관을 고려하여 아내의 마음을 안정시켜야 하는 것이 남편의 의무가 된다. 왜냐하면 부부유별과 같은 윤리관이 함의하는 바처럼 남편은 아내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내는 부양해야 할 식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조선조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를 물질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믿음은 보편적이었다. 이러한 신념은 홍부전과 허생전의 서두에서 묵시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홍부가 아내의 압력을 못 이겨서 형(놀부)에게 가는 것이나, 허생이 아내의 구박 때문에 장사를 나서는 이유는 이러한 경제적 신념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은 우선 물질적인 부양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음의 사례는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을 묘사하는 대목이다.

"여보 아이 아버지 내 말씀 좀 들어보오. 부질없이 청렴한 체하지 마오. 안자(顔子)의 누항 단표(陋巷單瓢), 주린 염치는 삼십에 일찍 죽고, 백이 숙제(伯夷 叔齊), 주린 염치 수양산에 굶어 죽으니 청루(靑樓)의 절은 각시 웃었으매, 부질 없는 청렴 말고 저 자식들 살려보오. 저 건너 아주버님 댁에 가서 쌀이 되든 돈이 되든 양단간에 얻어 옵소."

"그렇다면 공장 노릇도 못 한단 말입니까?"
"공장 일을 평소에 배우지 못했으니 어쩌오?"
"그렇다면 하다못해 장사라도 해야지요."
"장사를 하려 해도 밑천이 없으니 어쩌오?"

위에서 앞의 내용은 가난에 짓눌린 홍부아내가 남편을 구박하는 장면이고, 뒤의 내용은 허생 아내가 허생을 닥달하는 장면이다. 위의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아내들은 물질이 마음의 안정과 관계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남편들은 모두 가난을 즐기고 도를 추구하며, 물질은 마음의 안정을 해친다는 믿음을 고수하고 있다. 아내도 이러한 이상적 신념을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신념의 추구가 지속적인 가난으로 이어지게 되자, 남편의 부양 의무를 묵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남편의 물질적 부양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남편에 대한 공경의 정도는 낮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남편에 대한 물질적 부양 의무의 강조가 남편의 신체적 안전을 무시하는 선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홍부아내는 이 말을 듣자 몹시 놀라 하는 말이
"여보 아이 아버지, 매품 말이요? 남의 죄를 어찌 알고 대신이라니 웬 말이요? ---. 마오 마오 가지 마오, 만일에 갈 양이거든 나를 죽여 묻고 가오. 내 곧 죽어 세상 모르면 그는 응당 가려니와, 나를 살려 두고서는 못 가리다. 가지마오, 가지 마오, 제발 내 말 듣고 가지 마오. 만일 맞다가 아이 아버지 매맞아 죽게 되면 뭇초상이 날 터이니 부디 내 말 같시 마오."

홍부 아내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남편에게 물질적 부양 능력이 없다고 해서 남편의 신체적 안전까지 무시하면서 물질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의 신체적 안전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한편,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물질에 대한 믿음에 관계없이 아내를 부양해야 한다는 현실의 논리를 받아들이고 있다.

아내는 드디어 역정을 냈다.
"--- 그러면 도둑질은 어떻수?"
허생은 이말에 책장을 덮고는 벌떡 일어섰다.
" 애석한 일이로다. 내 10년을 작정하고 독서하려 했더니 이제 겨우 7년이로다"
그길로 허생은 문 밖으로 나섰다.

"여보 마누라, 날 좀 돌아보아라. 옛날에 이선이는 금돈을 쓰고, 한나라의 관운장은 위나라에 갔을 적에 상치말에 천금을, 하치말에 백금을 말로 되어 주었거니와, 나 같은 소장부는 읍내에서 한 번 꼼짝하면 돈 삼십냥이 우수수 쏟아진다. 마누라야 어서 빨리 거적문 좀 열어라"

위에서 첫구절은 허생이 아내의 성화에 못이겨 돈을 벌러 나가는 장면이다. 안빈낙도하는 믿음을 강하게 가진 허생도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해 나갈 수 밖에 없었다. 두번째 구절은 평소 경제적 능력이 없던 홍부가 매품 기회를 잡고 돈 삼십 냥을 벌 수 있는 상황에서 아내에게 하는 말이다. 이 인용문을 통해 홍부는 자신을 위한 물질 추구를 배제해야 한다는 믿음과 아내(식솔)를 부양해야 한다는 믿음의 괴리가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내를 부양해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홍부는 식솔을 부양할 단지 작은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잉 반응(허세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3) 사회적 관계와 물질

사람은 개인이나 가족이라는 틀 속에서만 살아가지는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 간다. 여기서의 사회적 관계란 앞서 보았던 가족의 범위보다 확장된 의미에서의 인간 관계를 말한다. 물질 가치관은 인간 관계의 틀 속에서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음을 이미 살펴 보았다. 본 절에서는 개인의 물질 가치관이 여러 종류의 대사회적 관계망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여기서는 사회적 의(義)를 고려할 때, 대인간 정(情)을 고려할 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그리고 기복신앙에서 나타나는 물질 추구의 측면을 다룰 것이다.

① 사회적 의(義)와 물질 추구

전술했던 것처럼 개인이 물질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신념을 갖고 있든지 관계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개인의 물질 추구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물질 추구는 대부분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이루어지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들(사회적 義)과 상충될 수 있다. 또 어떤 이유에서든 만약 개인이 물질을 추구할 경우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 정도나 방법에 대한 믿음들이 있을 수 있다. 다음의 경우를 보자.

홍부아내가 좋아라고 내달으니
"돈말이 원 말이요? 일수돈을 얻어 왔소? 월수파변을 얻어 왔소? 오푼짜리 달변을 얻어 왔소? 어서 말 좀 해보?"
홍부가 이르는 말이
"아니로세, 우리 처지에 변전 일수는 왜 얻겠나?"
"그러면 길에서 얻어 왔소?"
홍부 하는 말이 "이 돈은 횡재나 다름없는 돈일세"
홍부아내가
"그렇다면 길가에서 줏어왔을 터이니 잃은 사람이 원통치 않겠소? 여보 아이 아버지, 돈 줏은 길가에 바삐 갖다 놓고서, 돈임자가 와서 찾거들랑 도로 주면 고맙다고 사례하며 한 냥을 주든지 두 냥을 주든지 하는 것이 아니겠소? 그러면 떳떳한 일이니, 어서 가서 돈임자를 찾아 주오."

위의 내용은 홍부가 매품 팔 언약을 하고 나서 돈을 벌어 올 수 있다는 것을 아내에게 말하는 장면이다. 내용에서 홍부 아내의 대사를 보면 아무리 자신들이 궁색해도 길거리에서 주운 돈을 그냥 가질 수가 없는 것이며, 잃어버린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돌려주는 것이 떳떳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 관계에서의 義를 일컫고 있다고 하겠다. 사회적 의를 지키는 행동은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되므로, 정당성을 부여받지만 불의의 행동은 정

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 아무리 물질(돈)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정당한 것만을 추구해야 된다는 신념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는 사회적으로 정당한 물질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믿음 뿐 아니라 착한 마음을 먹고 선행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 보상의 신념까지 연결되고 있다. 물질(돈)의 추구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과 이러한 행동은 다시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

물질 추구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의미의 사회적 의나 정당성은 다른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값이 될 것은 당연하지. 그러나 이것은 백성들을 못살게 하는 방법이야. 백성을 도둑놈으로 만들기 좋은 방법이지. 훗날에라도 나랏일을 맡은 관리가 나의 이러한 방법을 쓰게 된다면 나라는 곧 망들고 말 거야."

위의 내용은 허생이 변씨에게 자신의 장사방식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이다. 여기서 그는 매점매석과 독점의 부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부의 획득은 우선 노력,밑천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과 밑천이 있다고 해서 부를 획득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사회적 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의 내용에서, 매점매석과 독점의 부당성은 사회 전체를 고려할 때 더욱 명백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부를 추구하는 것은 사회 전체를 염두에 두고 행해져야 한다는 신념을 의미한다.

② 사회적 정(情)과 물질 추구

우리 문화에서 인간관계의 끈인 정(情)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최상진, 1990). 즉 사회적 정은 대인 관계를 고려할 때 간과해서는 안될 개념이다. 사회적 의와 정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의가 인지적인 측면의 반영이라면 정은 정서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관계망에서 인간관계의 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 정이 내재하는 경우는 다양하다. 예컨대 가족 관계의 정이 있을 수 있고, 친구 사이의 정이 있으며, 보다 넓은 사회 관계에서 정이 있을 수 있다. 다음을 보자.

이방이 다시 말하기를
"환곡을 얻지 말고 대신 매를 맞으시오. 이 고을 김부자를 어느 놈이 영문에 무소를 하여 잡아올리라는 관자가 왔으나, 김부자는 공교롭게 병이 나고 친척도 병이 있어 대신을 보내고자 하여 나를 보고 의논을 하는데,---. 어서 다녀 오시요. 내 편지 한 장 갖다 영문사령에게 주면 혹시 매를 쳐도 헐장할 터이요.또한 김부자가 뒤로 장청에다 돈백이나 보낼 터이니 염려 말고 어서 가오"

위의 내용은 이방이 홍부에게 매품의 정보를 알려 주는 구절이다. 소위 공직신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은 홍부와의 인정 때문에 법을 어겨가면서 홍부의 물질 획득을 도와주고 있다. 정을 위하여 타인의 물질획득을 도와주어야 된다는 신념뿐이 아니라 사회적 정은 법보다도 중요할 수 있다는 신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당시 법적으로 매품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정은 뇌물수수와 같은 뒷거래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정이라는 것의 강도, 특히 사회적 정의 강도는 물질이 개입하였을 때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매품에 대한 정보를 들은 홍부는)
"여보 이런 말 내지 마오. 우리 마을 꾀쇠아버지가 알면 내 발등을 눌러 딛고 먼저 갈 터이니 소문내지 마오"

위의 내용은 홍부가 이방으로부터 매품의 기회가 있음을 듣고 이방에게 소문내지 말 것을 당부하는 구절이다. 여기서 보면 홍부는 가족을 살릴 돈을 벌

기 위하여 이웃인 피쇠 아비와의 정보공유를 거부하고 있다. 이웃과의 인정보다는 가족을 위한 물질이 우선인 셈이다. 이 경우 타인과의 정(情)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위한 물질 추구 신념이 더 강하기 때문에, 또 타인과의 정 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인과의 정은 평가절하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정을 생각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하나의 심리적 과정이다. 그러므로 정은 인간관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인정은 경제교환의 윤리에도 영향을 준다. 1 절에서 우리는 경제교환의 윤리를 심리적 투자와 결과 중심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 보았다. 아마도 경제교환의 윤리는 사회적 인정이 그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가령 다음의 사례를 보자.

> 김씨가 그 말을 자세히 듣고 하는 말이
> "자네가 마음씨만은 착한 사람일세. 나도 어디서 들었네만, 무사히 오고서야 돈 달랄 수가 있는가? 내가 마침 지닌 돈이 칠팔 냥이 있으니 쌀 말이나 사다 먹소" 하고 가버리므로, 흥부가 그 사람 가는 것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 "내가 매 한 개 아니 맞고 남의 돈을 공으로 먹으니 염치는 없거니와, 엽흘 굶어 군자없다고 하니 어찌할 수 있으랴?" 하고는 (돈을 받는다).

> "아무렴 그렇고 말고! 그 돈 덜 받고야 그런 힘드는 일을 할 잡놈이 어디 있겠나? 여보게 놀부 들어 보게. 이것이 자네 일이고 또한 동네 정분으로 삯을 이토록 헐하게 정하였으니, 그런 줄이나 알고 재물을 얻은 후에는 다시 상금으로 생각하게나?"
> 놀부는 마음이 흐뭇한지라, 박 열 통에 선금으로 이백냥을 선뜻 내어 주니 언청이와 곱사등이 두 놈이 반반씩 나누어 가진 다음 박 한 통을 들여 놓고 켜기 시작하더라.

위의 구절 중 앞의 것은 흥부가 매를 맞지 않고서도 김부자 조카 김씨로부터 약간의 돈을 받는 장면이며, 뒤의 것은 놀부와 그 일꾼들이 박을 타기 전에 삯을 정하는 내용이다. 김씨의 경우에서 보면, 사회적 인정이 중요하면 설사 결과가 없더라도 (즉, 일은 못했지만 심리적 투자를 했으므로) 정리(情理)를 생각해서 어느 정도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신념을 발견할 수 있다. 또 놀부와 일꾼들의 대화에서 사회적 정이 삯품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은 경제의 독특한 측면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인정이 중요하다고 해서 결과에 의한 보상의 원칙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일의 결과가 없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염치없는 행동이다. 따라서 결과가 있어야 보상을 한다는 기본적 전제 위에 정이라는 측면이 개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사례를 보자.

> 짚신장사를 해보리라 하고 하는 말이
> "여보 마누라, 저 건너 김 동지네 집에 가서 짚 한 뭇만 얻어 오소. 전답없어 농사 못하고, 밑천 없어 장사 못하니 짚신 장사나 해 보겠네"
> 마누라가 퉁기는 말이
> "아쉬우면 가끔가끔 얻어 오고, 또 꺼라 말하겠소? 나는 가서 말할 염치 없소"
> 짚신장사를 해보리라 하고 하는 말이

위의 내용에서 흥부 아내는 정에 의존하여 물질(짚 한 뭇)을 구하는 것이 염치없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지나치게 정에 의존한 물질 추구는 사회적 의(義)라는 경계를 벗어나게 된다고 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의는 지나치게 정에 의존하여 인간 관계를 맺는 것의 한계를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친사회적 행동과 물질

개인의 물질 가치관은 친사회적 행동의 맥락에서도 나타난다. 자선이나 기부 등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은 대개 물질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친사회적 물질 소비 행동은 사회적 의나 정 자체의 표현인 경우, 즉 친사회적 행동 차체가 목적인 경우

와 친사회적 행동이 수단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순수한 의미의 자선 행동을 보자.

> 이로부터 허생은 온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구제했다. 그러고도 10만 냥이나 남았다.

위의 구절은 허생이 장사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인 다음 가난 구제에 나섰다는 내용이다. 허생의 경우는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에 대한 측은지심(惻隱之心), 즉 측은한 심경으로 자선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허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의 물질 소비는 사회적 구제에 있었다. 가난한 백성을 구하는 것이 소비 행동의 유일한 이유였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자선 행동에 다른 이유가 내재해 있다. 다음을 보자.

> 놀부놈의 거동을 보니 어찌 할 바를 몰라 하며 어서 박을 켜서 재물을 얻으려고 날뛰더라. 그 중에 먼저 얼린 큰 박 하나를 위선 따다 놓고 저의 계집과 켜려 하다 그 박이 쇠갈이 굳어 있어 저희끼리는 할 수 없는지라, 별수없이 삯꾼을 얻는데 먼저 건너 마을 목수를 청하여 먹통과 자를 가져오라 일러주고, 이웃동네 병신이건 성한 사람이건 힘꼴이나 쓰는 자는 다 불러 놓고 밥 세 때에 술 다섯 차례, 개를 잡고, 돼지를 잡아 푸짐하게 먹이더라.
> 전에는 밥 한 술 남 주지 아니하고 제사음식도 차리는 법이 없는 위인이 망할 때가 되어 그렇던지, 이놈의 오장육부가 뒤집히어 독술과 섬떡을 아낌없이 하여 놓고 동네 사람 다 모아다가 배불리 먹이며 삯을 후히 정하려 하니 그 중에 언청이와 곱사등이 두 사람이 힘게나 쓰는지라

위의 구절은 놀부가 박을 타기 전에 동네 사람을 불러 놓고 잔치를 차려주는 장면이다. 여기서 놀부는 전에는 안하던 자선 행동을 보여주는데 놀부는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물론 이러한 질문에 대해 간단히 '삯꾼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대답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사람을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단순히 일꾼을 구하는 일이라면 잔치를 차릴 이유는 없다. 충분한 품삯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부는 전에 없던 부산을 떨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큰일을 도모하기 전에 행하는 하나의 의식(ritual)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미리 선행을 하는 것이다. 즉 선행을 하고 나면(배고픈 이웃들을 배불리 먹이고 나면), 차후의 일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다음의 사례를 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 "상중하 남녀노소들은 내 말을 들으시오. 내 박순 다치지 마시오. 집이 무너지면 새로 지어줄 것이며, 기물이 깨어지면 십동갑으로 값을 쳐서 줄 것이니 박속에서 비단이 나오면 베잣감 휘양감을 줄 것이니 박넌출만 다치지 마시오"

위의 구절은 놀부의 박이 무르익을 시기에 놀부가 동네 사람들에게 박을 다치지 않도록 당부하는 내용이다. 놀부의 이러한 친사회적 공약의 배후에는 아마도 기대 실현을 위해선 사회적 의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 내재해 있다고 하겠다. 예컨대, 선행을 하면 하늘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클 경우 그 기대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이 위의 사례와 같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혹은 친사회적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은 보상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차후의 결과에 대한 주관적 확률은 증가한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처럼 불쌍한 사람이나 이웃을 대상으로 자선, 기부 행동을 하는 것은, 우선 그런 선행이 후일에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때 그 보상의 주체는 하늘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선과 기부를 하는 것이 반드시 커다란 결과를 기대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가령 자

선과 기부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보상이라는 기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놀부 인심 좋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찾아 왔으니 한바탕 놀고 갑세! 행하는 자연 후에 줄 터이니--." 둥당둥당 팽팽팽팽 사면으로 뛰놀면서, 함부로 욕설마저 퍼부으며 〈쌀섬을 내 놓아라!〉〈술밥을 내놔라!〉〈돈백을 내놔라!〉하고 정신없이 지껄이니 놀부는 그 거동을 보고 어이없기에 일찌기 쫓아 보내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하고, 돈백 냥에 쌀 한 섬을 주어 보낸 후로 또 한 통을 따다 놀고 켜는데--.

"면경, 석경, 만리경, 요지경이요, 담뿍 치는 다발경이라. 얼싸구 좋다, 경이로다! 지화자 좋을씨고, 요지연을 둘러보소! 이선의 숙낭자요 당명황으 양귀비요, 초패왕의 우미인이요, 여포의 초선이요. 팔선녀를 둘러보소. 난양공·진채봉·가춘운·계섬월·적경홍·십요연·백능파 이런 미색을 보았느냐?"
하며, 온 집이 떠나갈 듯이 떠드니 놀부놈은 기가 막히나 다른 박이나 타볼 양으로 돈 삼천 냥을 내놓고서 비는 말이 --.

위의 구절은 모두 놀부가 박을 켠 후 봉변을 당하는 장면이다. 여기서 놀부는 상황이 주는 심리적 부담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돈을 내놓고 있다. 비록 놀부의 물욕이 강하긴 하나 그는 상황이 주는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까운 돈을 기부하는 것이다. 결국 자선 기부를 하는 이유는 자신이 편해지기 위해서, 즉 상황이 귀찮기 때문일 수 있다.

자선이 하나의 수단이 되는 또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자선 행동을 통하여 자신이 친사회적 인간이며, 선량한 시민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경우가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의 자선행동 사례는 분석대상의 소설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있어서 사회로부터의 인정 욕구는 결코 무시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인정을 얻기 위해서 자선 행동을 하는 경우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국 자선, 기부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에 내재되어 있는 물질적 신념은 보상이나 발복에 대한 강한 기대, 또 상황이 주는 압박감으로부터 탈피, 그리고 행동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경우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④ 기복 신앙과 물질

인간의 사회적 행동에는 종교 의식과 관련된 행동들도 포함된다. 왜냐하면 종교 행동에도 물질이 관련된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의식과 관련하여 여러 종류의 물질 가치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상 숭배시 물질적인 공양을 함으로써 자신이 물질을 획득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을 수 있고, 의식 행동을 통해 화를 피하려는 액땜 소비의 신념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종교 행동에서 비교적 보편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복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복 신앙의 행동에는 물질적 측면이 관련되기 마련이다.

"이놈 놀부야, 우리 스승님이 네 집을 위하여 수륙도량 칠칠이 사십구일을 드렸으니, 재물로 의논하면 몇 만냥인지 모르니 돈 오천 냥만 바치어라"
놀부가 묻는 말이 "나를 위하여 무슨 재를 올린단 말이요?"
노승이 다시 꾸짖어 가로되 "이놈 놀부야 들어 보아라. 네가 수다한 재물을 턱 없이 바라니, 부처님께 재 한번 아니 올리고 공연히 재물을 얻을까 싶으냐?"
놀부 다시 묻는 말이 "재를 올리면 다음에는 재물이 나온단 말이요?"---.
놀부는 재물이 생기도록 불공을 올렸다는 말을 듣고서 아무런 아까움이 없이 돈 오천 냥을 주어 보내니, ---.

위의 내용은 놀부의 기복신앙의 행동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놀부의 경우 아무런 아까움이 없이 돈 오천 냥을 내놓는 이유는 재물에 대한 그의 기대 때문이다. 이 구절은 빈부는 하늘에 달려 있다는 신념을 내포하고 있다. 물질 획득의 주재자가 하늘이라고 본

다면 하늘에 의한 물질 획득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선행하여 보상을 얻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늘에 직접 비는 것이다. 그리고 종교행동의 기복신념은 물질을 획득하는 데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가올지도 모르는 화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종교의식도 있을 수 있다.

> 이리할 새 상둣군들이 일변 놀부를 서슬있게 부르더니 "이놈 놀부야, 돈 만냥만 내주면 상여를 우리가 도로 메고 가마. 상여만 없고 보면 송장 없는 장사가 될 터이니, 산소고 석물이고 없을 것이 아니냐?"
> 놀부의 생각에도 그 말이 옳은 듯하기에, 전답은 선자리에서 헐값으로 팔아 버리고 돈 삼천냥을 비대발괄하여 내 놓으니 상둣군들이 상여를 메고 가는지라.

위의 내용은 다가올 화를 피하기 위해 놀부가 재물을 바치는 장면이다. 물론 이 내용이 정확히 신앙행동은 아니지만 이러한 유형의 행동은 하나의 액땜행동으로 해석 가능하다. 즉 닥칠지도 모르는 화를 미리 막을 수 있다면 재물쯤은 아까운 것이 아니다. 재물이 소중하기는 해도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보호할 수 있다면 이러한 종류의 액땜 소비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 분석하였던 한국인의 전통적 경제가치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된다. 하나는 추상적인 수준에서 인간이 물질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신념들의 집합인 물질 가치관이며, 다른 하나는 보다 구체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구체적 수준의 물질에 대한 신념들의 집합인 물질 가치관이다.

전통적인 경제 가치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물질은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좋은 것이며 당연히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신념과 물질은 마음을 해치기 때문에 추구해선 안된다는 이상적인 신념이 공존한다는 점이다. 사회 전체의 가치 지향이라는 사회적 수준이 아닌 개인 수준에서 개인이 이 두 가지 신념을 가지고 산다면 심리적인 갈등을 겪게 될 소지가 있다(물론 상황에 따라 합리화할 수 있어 아예 갈등이 없을 수도 있다). 이상과 현실사이의 괴리, 즉 관념으로서 가치관과 행동의 동인으로서 가치관 사이의 거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둘사이의 조절 기제로 제시되고 있는 개념이 바로 '분수(分守)'이다. 개인이나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의 사회적 신분나 경제적 처지 정도에 해당하는 분수라는 기준을 내세움으로써 갈등적인 신념간 괴리를 극복할 수 있는 신념 체제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분수라는 개념이 모든 물질에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예술품, 문방사우, 술 등의 문화물질에는 예외적으로 적용),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기에 개인의 현실적인 경제행동에 적용될 때는 상황 편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분수의 개념은 현대인의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예컨대, '분수에 맞게 살아라', '네 분수를 알아라', '분에 넘치는 생활' 등의 표현 속에는 분수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어쨌든, 분수라는 개념은 예나 지금이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객관적 기준이라기 보다는 심리적 기준으로서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중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가치기준을 내재화할 경우 상황마다 행동은 달라지며, 사회적으로 상황 구체적인 가치기준이 보편화 된다. 사실 상황 구체적인 가치기준은 집단주의 문화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한상필,1990; Triandis, Brislin,& Hui,1988).

물질이라는 용어가 추상적인 의미를 갖는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표현은 가난이나 부일 것이다. 물질에 대한 여러 신념이 있는 것처럼, 빈·부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신념이 있을 수 있다. 전통적으로 빈·부와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신념은 그것이 운명적이라는 데 있다. 이러한 빈부에 대한 운명관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가난과 부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 개인은 현실상황을 극복하거나 유지 향상시키려 노력할 수 없을 것이다. 언제나 개인 외부의 절대적 힘에 의해서만 현실이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만약 개인에게 가난이라는 현실이 주어지면 조상 탓이나 팔자타령과 같은 자포자기식의 원망과 불평만이 있게 되고, 부유한 현실이 주어지면 한풀이성 소비나 하늘이나 절대자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일종의 선민의식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거 한국인에게는 빈부에 대한 절대적인 운명관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외부의 절대적인 힘(하늘)과 빈·부의 문제 사이에 개인의 도덕적 선행이라는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다. 즉 도덕적 선행을 하고 성실하게 행동하면 언젠가는 하늘을 감동시켜서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신념이 그것이다. 도덕적 선행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라는 인과응보의 믿음인 것이다. 이러한 신념체계는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도덕적, 윤리적 행동을 강화시킬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윤리나 도덕을 도구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문제시되는 소위 졸부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과소비는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즉 갑작스런 부의 획득은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것일 뿐아니라 자신 또는 조상의 도덕적 선행의 결과라는 정당성의 신념하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나 집안의 도덕적 정당성을 가시적인 방법(소비행동)으로 타인에게 과시하거나 알릴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가난이나 부를 획득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에 대한 믿음도 존재했다. 가령 가난의 원인을 팔자나 조상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노력 부족이나 능력 부족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가난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지각된다. 그러나 가난과 부는 하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는 신념은 여전히 지배적이며,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를 획득하려는 노력도 빈부 운명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예컨대 허생의 경우, 자신이 장사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재물복은 전이(轉移)된다'는 것으로 귀인하고 있다. 즉 자신이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변씨라는 재복있는 사람의 돈을 빌려 밑천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재물이 있고 없음이 하늘에 의해 결정된다면, 재물을 보유하는 사람은 하늘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물을 가진 사람과 친해지거나, 재복있는 사람의 재물을 활용하는 것은 결국 재복을 활용하는 셈이 된다. 즉 재복은 전이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념은 최근의 다양한 장면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가령, 결혼 시에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사람을 주례로 모시려는 경우, 영험있는 물건이나 대상을 섬기는 경우, 재수없다고 여겨지는 물건이나 사람을 회피하려는 경우 등은 이러한 전통적인 복·화의 전이 신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빈·부와 관련하여 간과해선 안 될 또 다른 문제는 귀천(貴賤)의 개념이다. 전통적으로, 빈부와 귀천은 하늘에 달려 있다(富貴在天)고 생각했다. 그런데 빈부와 귀천이 공변하는가 혹은 괴리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다소 복잡하다. 왜냐 하면, 부와 빈은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쉽게 정의할 수 있지만 귀천의 개념은 단일 차원의 구성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양반이라는 신분은 평민보다는 높은 신분이며 그래서 귀한 존재로 인식된다. 그러나 조선조 중기 이후 양반도 벼슬을 하지 못하면 신분상의 귀는 부와 관계가 없게 되었다(殘班의 경우). 그래서 양반이라 해도 벼슬을 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놓일 수 있었다. 그리하여 신분상 귀하면서도 가난하기 때문에 천시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귀천을 벼슬과 같은 지위로 생각하면 벼슬은 부획득의 수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 귀는 부의 원인이

된다. 부가 귀의 원인인 경우도 있다. 부자들이 돈으로 신분을 사려는 경우는 부로 귀를 얻을 수 있다는 신념 때문에 가능하다. 가령, 양반전에서 부자가 양반의 신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시도는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귀천을 정신적인 측면으로 생각하면 빈부와 귀천의 관계는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즉 인격의 고매함을 귀한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귀는 경제적인 부와 전혀 관계가 없을 수 있다. 부자라고 해서 반드시 인격이 고매한 것이 아니며 동시에 성품이 뛰어나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때로 부자는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도 있다. 빈부를 결정짓는 외부의 절대적 힘(하늘)에 의한 일종의 보상으로서 경제적 부가 달성된 경우이다. 이런 경우 경제적 부가 있는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그의 인격이 부를 낳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결국 전통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이상적인 부귀의 상태는 경제적 부와 정신적 귀를 동시에 보유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람직한 富者像 또는 淸富像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이상적 부자관은 사회적 성공의 기준이 경제적 측면만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나 정신적 고결성도 아닌 채 미분화하여 혼재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재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성공은 중요한 기준이 된다 : 51 %, 우리사회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존경을 받는다 : 87%, 대홍기획, 1994).

빈부라는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돈의 많고 적음이다. 인류 역사에서 화폐가 등장한 이후 돈은 대부분의 사람이 추구하는 대상물이 되었으며, 초유능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과거의 한국사람들도 돈이란 신분은 물론이고 '아홉 나라의 왕의 머리'를 살 수 있을 만큼 위대한 것이며, 인간의 생명과도 비교될 수 있는 것으로 믿어 왔다. 돈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황금 만능주의'의 내용과 다름이 없다. 결국 황금 만능주의의 신념은 어제 오늘의 산물이 아니며, 단순히 서구 자본주의의 부산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 문화에도 돈의 초유능성에 대한 신념은 억제된 채로 명백히 있어 왔으나, 서구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억제가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에 사회적 문제로 자주 언급되는 황금 만능주의 풍조에 대한 그 원인을 서구 자본주의 체제의 유입으로 귀인하는 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

지금까지 인간관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통적인 물질 가치관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맥락을 고려할 때 도출되는 물질가치관의 내용은 맥락에 따라 양상이 다르다. 우선 자기 자신만을 고려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물질가치관은 자기에 대한 인간관이 어떠하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우리 문화의 전통에서 개인 차원의 이상적인 신념은 인격을 닦고 수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의 한국인들은 물질은 인격 수양을 방해한다는 신념이 지배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난한 서민들은 현실적으로 물질은 마음의 안정-인격 수양과는 다른 의미-을 가져온다라는 신념을 유지하기 쉬웠다. 따라서 계층간 유동이 어려운 이분된 사회 계층(양반과 상민)에 따라,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한 양반이나 선비는 군자를 지향하여 물질을 배격해야 한다는 신념을 고수하고 일반 서민들은 소인이라하여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믿음을 유지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이원적 신념체계는 사회 계층이 비교적 고정적인 과거의 한국사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닌 듯하다. 대홍기획(1994)의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행복해질 수 있다'에 동의한 응답은 60.8%였으며, '우리사회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존경을 받는다'에 87%가 동의하였다.

가족 관계의 상황에서도 물질가치관의 내용은 달라진다. 가족관계의 유형은 부모-자식의 관계, 부부관계, 형제관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각각

의 관계에는 물질과는 독립적인 인간관계 가치관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물질 가치관은 그 관계에 대한 가치관에 의해 조절된다. 우선 자식이 부모를 고려할 때 그 관계에서 핵심이 되는 가치관은 효(孝)의 실천이다. 효를 실천하는 데 있어 부모에 대한 물질적 봉양은 필요조건이라 하겠다. 이런 물질적 효실천 신념은 부모 사후에도 유지되며, 그래서 祭祀를 통해 행동으로 나타난다. 효실천에서 물질적 봉양의 필요조건에 대한 이러한 신념은 군자 지향형에게 자신의 인간관, 물질관과는 괴리를 겪게 하며, 자신을 소인으로 지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적 효실천의 형식성을 증시하게 할 수 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부모의 입장에서도 고려된다. 가족주의라고 표현되는 우리 문화에서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가계의 연속선이며, 부모의 대리인이 된다. 그러므로 자식에게 자애(慈愛)를 베풀어야 된다는 인간적인 신념은 강하게 내면화되며, 이는 물질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을 물질적으로 부양해야 하며, 그런 부양의 신념은 부모자신의 물질관에 선행한다.

가족 관계의 또 다른 유형은 부부 관계이다. 우리 문화에서 부부 관계를 지배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의 내용은 부부유별(夫婦有別)이라는 신념이다. 즉, 남편은 아내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인정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신념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편은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아내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아내는 남편에게서 물질적 부양을 받음으로써 남편을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신념은 남편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만약 남편이 그것들을 갖추지 부부유별의 기본 신념과 상치되고 부부사이에 갈등을 유발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 한국사회에서는 이러한 신념들간 괴리를 규범적-남존여비, 부부유별-으로 억누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과거의 신념은 남존여비나 부부유별의 믿음이 거의 깨진 현재 한국사회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는 듯하다. 예컨대 최근의 조사에서 '맞벌이를 하더라도 집안 일은 주부의 책임이다'는 문항에 동의한 사람이 45.2% 였다(대홍기획,1994).

가족주의 가치관의 다른 내용은 형제관계에서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형제 사이의 이상적인 인간관은 우애(友愛)가 있어야 된다는 신념이다. 형제간 우애가 강조되면, 형제 사이의 물질적 공유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형제는 부귀화복을 같이 해야 한다는 신념이 전통적으로 우리 문화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념은 형제들의 결혼을 분기점으로하여 분화하게 된다. 분가 후 형제의 정과 물질의 공유는 관계가 없으며, 물질적 의존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떳떳한 것이 된다. 그렇지만 결혼 후에도 형제간 물질의 공유와 독립은 뚜렷하지 않았던 듯하다.

인간은 개인이나 가족의 틀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니며 누구나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간다. 그러므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 신념은 사회적 인간관계에 대한 신념의 내용이 어떠한가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사회적 인간관의 대표적인 내용은 '사회적 예(禮)나 의(義)을 지켜야 된다'는 신념이다. 사회적 의라는 것이 강조됨으로써 물질에 관한 신념도 사회규범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즉, 돈을 추구하거나 부를 획득하는 방법도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다. 물론 사회적 예나 의가 사회적 정당성이라는 긍정적 의미만을 지닌 것은 아니다. 특히 사회적 예는 내용과 형식-마음과 표현 방법-의 조화라는 원래의 뜻과 달리 형식으로서 중요성이 강조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신념들은 현대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듯하다. 예컨대 최근 조사에서 '개인적인 일로 외출 시에도 정장을 한다'는 성인이 58%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옷을 잘 입어야 대접받는다'는 응답이 72%였으며, '손님을 초대할 때 부담이 되더라도

음식을 차리는 것이 예이다'는 72%,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문항에 대해 49.2%가 동의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인간관 중에서 무시해서는 안될 개념이 '사회적 정(情)'을 지키는 것이다. 과거의 한국사회에서 대개의 경우 사회적 정은 사회적 의라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있지만 때로 사회적 정은 사회적 의보다도 중요할 수 있으며, 그래서 정을 위하여 법과 같은 사회적 의는 무시될 수도 있다. 이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대개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면이 있었으나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정이 오가는 당사자들이 아닌 다른 대인관계를 저해할 뿐아니라 뇌물이나 비리를 합리화하는 면이 되고 있었다.

인간의 물질 가치관은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맥락에서도 나타난다. 자선이나 기부를 하는 행동은 대개 물질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자선 행동의 이면에는 물질과 관련한 어떤 신념이 있기 마련이다. 자선 행동은 일종의 선행으로서 하늘의 보상을 유도하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믿음이다. 이러한 신념이 내재화 되었을 때 자선행동은 차후에 얻을 수 있는 물질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 강화될 수 있다. 더구나 자선을 하는 것이 이미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하늘에 의한 물질적 보상으로 이어진다고 지각한다면 자선행동은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자선 행동이 보상이라는 기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황 자체가 자선행동을 하지 않으면 귀찮기 때문에 단순히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부나 자선을 행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단지 심리적 긴장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선을 할 수 있다. 물론 자선행동을 물질적 보상을 위해 도구적이 아닌 당연한 덕행으로 생각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자선을 하는 경우가 당연히 존재할 것이다.

물질 가치관은 종교 의식의 행동과도 관련이 있다. 우리 문화에서 대부분의 종교적 신념이 기복 신앙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은 종교 행동에 물질적 신념이 내재해 있음을 암시한다. 즉, 물질을 바침으로써 종교적 절대자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신념이 존재한다. 또 물질을 바침으로써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화를 피할 수 있다는 액땜소비의 신념도 있다. 이 경우에 만약 물질추구욕이 강한 사람이라도 앞으로 화를 당할 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면, 자신의 현재 물질이 소중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물질을 종교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결국 우리 문화에서 액땜을 포함한 기복신앙이 일반적이라고 볼 때, 종교단체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유는 전통적 물질 가치관의 영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신앙과 물질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신념이 강함으로써, 종교인들은 그 신념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인의 전통적 경제 가치관의 내용을 이상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의 관계, 그리고 다양한 인간관계의 틀을 고려하여 살펴 보았으며, 그 내용이 현대사회의 한국인들에게서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전통적인 경제 가치관의 내용은 작금의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경제 행동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밝혔던 가치관의 내용이 현대 한국인의 전통적인 경제 가치관의 내용을 포괄한다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았던 문헌의 수와 내용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흥부전」의 경우, 형제관계와 선악의 문제를 핵심 주제로 삼고 있으며, 「허생전」의 경우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실사구시의 경제 가치관이 그 내용이다. 그리고 「양반전」은 신분과 경제적 능력의 관계에 대한 당시 사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내용을 벗어나는 경제 가치관의 전통적 측면은 여전히 밝혀야할 과제로 남는다. 또한 대상 문헌이 조선 중·후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이전

시대의 경제가치관의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없다. 이는 차후의 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경제 가치관의 내용이 현대 사회에서 얼마나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 조사(대홍기획,1994)와 추론을 통해 간단히 비교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논의한 전통적 물질가치관과 경제 행동 규범이 현대에 이르러 어떻게 변화, 수정, 유지되었는지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후속의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아마도 본 연구에서 밝혀진 전통적 물질가치관의 내용을 기초로 척도를 구성하여 현대인을 조사한다면 현재 한국인의 전통적 경제 가치관의 정도를 양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과거 한국의 이상적이며 규범적인 경제가치관뿐아니라 현실적이며 서민적인 경제가치관을 추론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서민들의 삶을 직접 반영한 문헌을 분석했기 때문에 논어와 맹자를 대상으로한 선행 연구(성영신 등, 1994)와 짝을 이루어 살펴보면 한국인의 전통적 경제가치관의 내용을 유추하는 데 보다 타당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으리라 본다. 이 두 연구결과를 통해 현대 한국 사회에서 문제시되는 경제 행동들, 즉 과소비 행동, 한풀이성 소비 행동, 정실주의 행동 등을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차후 경제 행동 연구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으며, 마케팅 영역에서도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그리고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도 사회문제가 되는 경제 행동의 전통적 측면을 이해함으로써 그 행동의 심리적 메카니즘을 고려한 정책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경동 (1992).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회의식.** 박영사.

김성태 (1990). 경 사상과 한국 문화.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초록(특강).** 朱熹. 論語集註.

대홍기획 (1994). **1994 년 라이프스타일 조사. 미발행 보고서.** 대홍기획.

박지원. 「양반전」. **연암집.**

박지원. 「허생전」. **연암집.**

성영신, 김철민, 서정희, 박종구, 박은아 (1994). 논어와 맹자에 나타난 물질관과 소비행동. **소비자학 연구, 5**(1), 99-114.

손낙범 교주본. **「흥부전」.**

윤사순 (1984).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문음사.

윤태림 (1977). **한국인의 성격.** 현대 교육 총서.

이강수 (1986). 한국인의 전통문화와 문화 변동. **정신문화**,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정신문화연구원 편 (1984). **한국인의 성격.** 고려원.

정신문화연구원 편 (1988). **한국적 사고의 원형.** 고려원.

정양은 (1970). 감정론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3), 77-90.

정양은 (1976). 심리구조론의 동서비교. **한국심리학회지, 2**(2), 68-79.

조긍호 (1990). 맹자에 나타난 심리학적 함의(Ⅰ): 인성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사회, 5**(1), 59-81.

조긍호 (1991). 맹자에 나타난 심리학적 함의(Ⅱ): 교육론과 도덕실천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사회, 6**(1), 73-108.

차재호 (1984). **한국인의 성격.** 정신문화연구원, 고려원.

최상진 (1990). 속담을 통해 본 한국인의 심성에 대한 사회적 표상.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 4집**, 134-175.

최상진 (1991). 한의 사회심리학적 개념화 시도.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초록**, 339-350.

최상진, 최수향 (1990). 정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 초록**, 9-11.

최정호 (1990). 복의 구조:한국인의 행복관. **계간 사상, 2**(2), 163-210.

한규석 (1992). 사회심리학 이론의 문화 특수성: 한국인의 사회심리학 연구를 위한 고찰.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 초록.**

한덕웅, 전겸구 (1990). 정서과정설로서의 퇴계의 사칠론.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초록**, 293-302.

한상필 (1990).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 **광고연구,겨울호**, 223-251.

Benedict. R. (1946). [김윤식, 오인석 역. (1973), **국화와 칼**. 서울:을유문화사.]

Csikszentmihalyi,M., & Rochberg-Halton, E. (1981). The meaning of things: Domestic symbols & the self. Cambridge, MA: Cambridge Univ. Press.

Dawson,S. & Bamossy,G. (1990). Isolating the effect of non-economic factors on the development of a consumer culture: A comparison of materialism in the netherlands and the united states. *Advances in Conumer Research, 17,* 182-185.

Ger,G. & Belk, R. W. (1990). Measuring and *comparing materialism cross-culturally. Advances in Conumer Research, 17,* 186-192.

Rokeach, M. (1979). Understanding human values: Individual and societal. N.Y.: The Free Press.

Triandis, H. C., Brislin, R., & Hui, C, H. (1988). Cross-cultural training across the individualism-collectivism divid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2,* 269-289.

Wallendorf, M., & Arnould, E. J. (1988). "My favorite things": A cross-cultural inquiry into object attachment, possessiveness, and social linkag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4,* 531-547.

1차 접수 : 1995. 10. 20
수정본 접수: 1995. 11. 25

韓國心理學會誌 : 産業 및 組織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995. Vol. 8, No. 1, 103-139

A Study on Traditional Economic Values of Korean

Sung, Young-Shin
Kim, Chul-Min Ko, Dong-Woo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traditional values in Korean economic behaviors. For this study, we selected classical novels, 'Heungboojeon', 'Heosaengjeon' and 'Yangbanjeon' that have been popular with Korean since the mid-late Chosun-era. The framework for the content analysis with these literatures consisted of i) material values, ii) human-relation values, and iii) material values in the human relations. i) and iii) among these values refered to econmic values. More specifically, the material values constituted beliefs about relationship between mind and material, beliefs about poverty/wealth, and psychological meanings of money. Material values in the human relations dealt with relationships-individual vs. materials, family vs. materials, and social network vs. materials. The result of this study might contribute to understanding Korean economic behaviors in the present. Also it might have implications on the future reseach about economic values and marketing strategies.